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

최원희*

The Characteristics of Formation and Change of Rural Settlement Form in Taean Peninsula Region

Wonhoe Choi*

요약 : 태안반도에는 우리나라 서남부 평야지대의 일반적 집촌과 다른 입지조건하의 '전통적 집촌'과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 등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의 일반적 산촌과는 다른 입지조건하의 '전통적 산촌'이 고유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여러 연구자들이 태안반도에 고유하게 발달되어 있는 전통적 집촌 및 전통적 산촌의 특성에 주목하여 '태안반도 전통적 집촌 및 전통적 산촌의 형성 과정 및 요인 측면의 특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집촌 및 산촌으로 대별되는 촌락형태의 형성'에 관한 연구에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필자는 최근 답사 및 문헌 고찰을 통하여 "태안반도에 우리나라 전통적 집촌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배산입수 입지에서의 논농사'의 일부를 적용하거나 변형한" '유사집촌'과 "태안반도 전통적 산촌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구릉지 사면에서의 밭농사'의 일부를 적용하거나 변형한" '유사산촌'이 존재함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태안반도의 촌락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에 대해 그간에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개관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파악 결과에 현지답사 결과를 더하여 두 결과에 터하여 '태안반도 촌락형태 변화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지답사 이외에 '촌락형태 형성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개관하였고, 이어서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에 대하여 개관하였고, 끝으로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에 대해 개관하였다.

주요어 : 태안반도, 촌락형태, 전통적 집촌, 전통적 산촌, 유사집촌, 유사산촌, 형성, 변화, 특성

Abstract : In Taean peninsula region the traditional agglomerated settlement under the different condition with general agglomerated settlement of southwestern plains in Korea and the traditional dispersed settlement under the different condition with general dispersed settlement of mountainous slash-and-burn farming area in Gaema plateau and Taebaek mountains are well-developed uniquely. Meanwhile the various researchers have carried out with scrupulous attention to detail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agglomerated settlement and traditional dispersed settlement in Taean peninsula region, and these studies are regarded as such things on formation of rural settlement form as agglomerated settlement and dispersed settlement. On one hand the author recognized the existence of pseudo-agglomerated settlement applying or changing a part of essential components in traditional agglomerated settlement and the existence of pseudo-dispersed settlement applying or changing a part of essential components in traditional dispersed settlement recently, this means that the rural settlement form in Taean peninsula region is changing. Accordingly, this study set up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formation of rural settlement form in Taean peninsula region' as first purpose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 of rural settlement form in Taean peninsula region on the previous identification results and the field investigation results' as second purpose respectivel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author made a field investigation for Taean peninsula region and reviewed the general theory on formation of rural settlement, the characteristics of formation of rural settlement form in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formation and change of rural settlement form in Taean peninsula region in order.

Key Words : Taean peninsula region, rural settlement form, traditional agglomerated settlement, traditional dispersed settlement, pseudo-agglomerated settlement, pseudo-dispersed settlement, formation, change, characteristics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vh@kongju.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촌락지리학에서 태안반도(泰安半島)의 촌락(村落)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이봉준(1977)의 ‘태안반도의 산촌(山村)¹⁾형성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고, 이 연구 이래 여러 연구들이 ‘태안반도의 촌락 연구’에 적지 않은 성과를 제시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최기엽(1986)의 ‘한국 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와 이문중(1988)의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는 ‘태안반도의 촌락 연구’의 결정판으로 간주된다.

태안반도의 촌락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이봉준(1977)의 연구는 그간 태백산지, 개마고원 등지의 고산화전지대(高山火田地帶)에 한정되어 있던 산촌 연구를 태안반도 일대의 저평한 구릉지대(丘陵地帶)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최기엽(1986)과 이문중(1988)의 연구는 태안반도의 집촌(集村)과 산촌을 동시에 들여다보므로 태안반도 촌락형성의 전체적 양상은 물론 태안반도 촌락형성 과정에서 산촌의 위상을 파악하고 있고, 특히 최기엽(1986)의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촌락형성의 맥락에서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의 위상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봉준(1977), 최기엽(1986), 이문중(1988) 등의 ‘태안반도 촌락 연구’의 대부분은 ‘집촌 및 산촌으로 대별되는 촌락형태의 형성’에 관한 연구에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필자는 최근 답사 및 문헌 고찰을 통하여 “태안반도에 우리나라 전통적 집촌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입지에서의 농농사’ 중에서 일부만 적용하거나 일부를 변형한 이른바 ‘유사집촌(類似集村, pseudo-agglomerated settlement)’이 소수나마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태안반도 전통적 산촌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구릉지 사면에서의 발농사’ 중에서 일부만 적용하거나 일부를 변형한” 이른바 ‘유사산촌(類似散村, pseudo-dispersed settlement)’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었는데(최원희, 2012), 이는 “태안반도의 촌락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안반도 촌락형태(村落形態) 형성(形成)의 특성’에 대해 그간에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개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파악 결과에 현지답사 결과를 더하여 두 결과에 더하여 ‘태안반도 촌락형태 변화(變化)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명기하면,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촌락형태 형성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개관하고, 이어서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에 대하여 개관하고, 끝으로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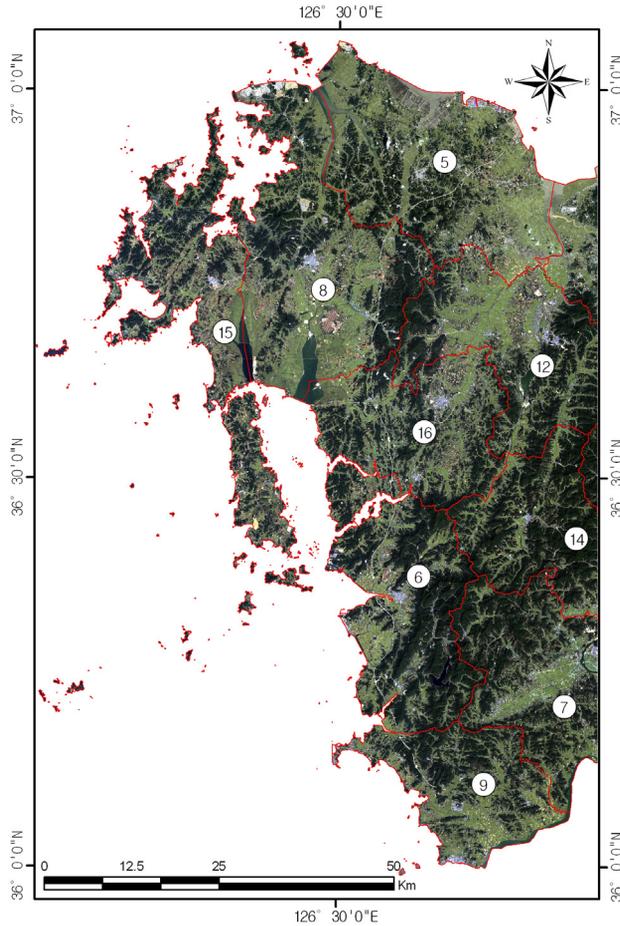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개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촌락형태 형성에 관한 일반적 이론’에서는 촌락형태의 정의와 분포, 촌락형태의 분류, 촌락형태의 형성요인, 촌락형태로서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 등에 대해, 그리고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에서는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분포,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형성요인 등에 대해 개관한다. 또한,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 중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에서는 태안반도 촌락형태의 분류,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특성,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과정 및 형성요인,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시기, 태안반도 촌락형태로서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 등에 대해 개관하고, ‘태안반도 촌락형태 변화의 특성’에서는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최근 변화양상, 태안반도 산촌의 제한적 집촌화 경향 및 형태적 관성 등에 대해 개관한다.

이러한 개관의 과정에서 ‘촌락형태 형성에 관한 일반적 이론’은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근거가 되고,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은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지역

본 연구에서는 ‘촌락형태의 형성에 관한 일반적 이론’,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 및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에 대해 개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간 국내에서 출간된 관련 서적 및 발표된 관련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특히 ‘태안반도 촌락형태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수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

연구지역인 태안반도는 지리적으로는 충청남도 서남부에서 황해로 돌출한 좁고 긴 반도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남도의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⑤ 당진시, ⑥ 보령시, ⑦ 부여군, ⑧ 서산시, ⑨ 서천군, ⑫ 예산군, ⑭ 청양군, ⑮ 태안군, ⑯ 홍성군

사진 1. 태안반도 지역

출처 : <http://www.kari.re.kr>.

등지를 의미한다(사진 1). 태안반도의 동서 길이는 동쪽의 예산읍에서 서쪽의 만리포까지 약 130km에 이르며, 해안선 연장은 약 817km에 이르고 있다. 태안반도는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여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고 있고, 아산만·당진만·서산만·가로림만·적돌만·천수만 등이 40km 전후의 좁고 긴 해안을 형성하고 있다. 태안반도 연안은 수심이 얇고 조차(潮差)는 8.7m로 크다. 태안반도는 북서계절풍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지형이어서 크고 작은 해안사빈, 해안사구 및 배후습지가 잘 발달해 있다(최원희, 2012, 240).

태안반도의 지질은 서산층군에 속하는 편마암 및 화강암이 대부분이다. 태안반도의 동남쪽에는 남북방향의 가야산맥(伽倻山脈)이 있는데, 이 산맥은 태안반도의 내

륙쪽 경계부에 해당된다. 태안반도의 중앙부에는 팔봉산(八峰山, 362m)이 있고, 북쪽에는 망일산(望日山, 302m)이 있으며, 이들 산지는 남쪽으로 75km 정도에 걸쳐 꼬리처럼 안면도까지 계속된다(최원희, 2012, 240).

태안반도 연안에는 A·B지구 간척지 이외에도 곳곳에 크고 작은 간척지가 많아서 농경지와 염전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으며, 농경지 주변에는 저수지가 많이 축조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태안반도의 내륙부에는 큰 하천이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 구릉성 산지 사이를 흐르는 소하천 연변에 소규모 범람원 축적지가 형성되어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릉성 산지 사면의 개간 농경지의 대부분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태안반도의 내륙부의 곳곳에 크고 작은 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어서 농

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최원희, 2013, 240).

II. 촌락형태 형성에 관한 일반적 이론

본 장에서는 ‘촌락형태 형성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파악하기 위해 촌락형태의 정의와 분포, 촌락형태의 분류, 촌락형태의 형성요인, 촌락형태로서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 등에 대해 개관한다. 이러한 ‘촌락형태 형성에 관한 일반적 이론’에 대한 개관은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근거가 되고, 더 나아가서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1. 촌락형태의 정의와 분포

촌락형태는 촌락의 구성단위인 가옥 및 대지의 결합도, 즉 가옥의 밀집도에 의해 집촌(集村, agglomerated settlement, nucleated settlement)과 산촌(散村, dispersed settlement)으로 구분된다.²⁾ 집촌은 특정 장소에 가옥이 밀집하여 집단을 이루는 촌락이다. 즉, 가옥의 밀도가 높은 촌락이다. 반면에 산촌은 개개의 가옥이 분산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촌락이다. 산촌의 가옥은 집단을 이루지 않고 그 밀도가 낮으며, 가옥 상호간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산재하는 것이 특징이다(권혁재, 2003, 458-463; 이진, 2011, 126).

가옥의 집산(集散)은 지형조건, 물의 제약, 방어의 필요성, 혈연적 관계, 토지이용 방법, 토지소유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최운식의, 2000, 272). 그러나, 가옥의 소밀정도는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성립의 역사가 장구한 곳에 집촌이, 성립의 역사가 연천한 곳에 산촌이 각각 형성된다(오홍석, 1995, 7).

집촌의 경우 학교, 작업장, 창고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배치하는데 편리하다. 그러나, 경작지가 촌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 특히, 경지규모가 클수록 경작지는 멀어진다. 산촌의 경우 경지가 농가의 주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작업하기가 편리하고 관리가 용이하다. 특히 대농장의 경우에 노동생산성이 높다. 그러나, 상수도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불편하고, 흩어져 있는 농가를 도로로 연결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촌락 전체의 중심이 없고, 촌락의 사회적

결합이 약하거나 공동체적인 활동이 결여되어 있다(이진, 2011, 127-128).

집촌형태는 여러 가지 이유로써 세계의 여러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인구가 조밀한 아시아, 유럽에 많다. 산촌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신대륙의 농목지역에 널리 분포한다. 이들은 대부분 최근에 정주된 것이다(홍경희, 1985, 176-177).

2. 촌락형태의 분류

촌락형태는 일반적으로 가옥과 경지의 조밀도, 특히 가옥의 집합도, 가옥과 경지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서 집촌과 산촌으로 분류하지만, 보다 자세히 보면, 집촌 또는 산촌의 세부형태 내지 하위형태가 존재하고, 집촌과 산촌의 중간형태 내지 과도형태(過渡形態)도 존재한다.

집촌과 산촌의 세부형태 내지 하위형태를 일반적 수준에서 보면, 집촌에는 괴촌(塊村), 열촌(列村), 노촌(路村), 가촌(街村), 환촌(環村) 등이 있고, 산촌에는 고립농가와 소촌이 있다.

집촌 중 괴촌은 가옥이 불규칙하게 덩어리 모양으로 분포하는 촌락을 말하고, 열촌은 가옥이 자연제방이나 산록부의 용천대를 따라 열을 지어 분포하는 것, 노촌은 가옥이 도로를 따라 열을 지어 분포하는 것, 가촌은 가옥이나 상점이 도로를 따라 열을 지어 분포하는 것, 환촌은 중앙에 원형의 광장을 갖고, 주위에 가옥이 고리모양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유럽의 중세 개척촌락에서 잘 관찰된다(전중환외, 2005, 191).

산촌 중 고립농가는 개개의 가옥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이고, 소촌은 몇 개의 가옥이 집합해서 한 단위를 형성하여 산재하는 것이다(이진, 2011, 128). 산촌에도 자연발생적 촌락과 계획적 설정촌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자가 더 많다(홍경희, 1985, 177).

집촌과 산촌의 세부형태 내지 하위형태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최기엽(1986, 138-141)은 집촌을 ‘소촌(소규모 집촌, 소촌적 응집)과 집촌(규모화된 촌락)’으로, 오홍석(1980, 193-194)은 산촌을 ‘고립농가와 소촌’으로, 홍경희(1985, 184)는 산촌을 ‘고립농가로, 최기엽(1986, 135)은 산촌을 ‘소촌’으로 각각 상세화하고 있다. 또한, 집촌과 산촌의 중간형태 내지 과도형태를 보면, 홍경희(1985, 172-184)는 ‘분산적 응집촌

(分散的 凝集村) 혹은 성운상 촌락(星雲狀 村落), 응집적 산촌(凝集的 散村)(172), '산재한 선형 패턴, 분산 혹은 집합된 소촌(小村)(174), '소촌(장촌 [莊村])(184) 등을 제시하고 있다(표 1).

요컨대, 촌락형태는 집촌의 경우 '소규모 집촌 또는 소촌적 응집 수준의 소촌'과 '규모화된 촌락으로서의 집촌'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규모화된 집촌을 다시 형태, 기능 등에 따라 괴촌, 열촌, 노촌, 가촌, 환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촌의 경우 '고립농가'와 '소촌'으로 세분할 수 있다. 집촌과 산촌의 중간형태 내지 과도형태의 경우 분산적 응집촌, 성운상 촌락, 응집적 산촌, 산재한 선형 패턴, 분산 혹은 집합된 소촌, 소촌(장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촌락형태의 형성요인

촌락형태의 형성요인을 촌락지리 관련 주요 연구들에서 추출해 정리하면, 집촌의 형성요인으로는 평야지대, 빈수지대 용출지(貧水地帶 湧出地), 홍수 대치, 인간의 사회성, 혈연관계, 인종적 풍습(문화적 전통), 장구한 취락 역사, 외적방어, 미작농업의 공동작업, 토지공동소유, 자치농업의 개방경지제, 계획적 촌락설정, 도로교차지, 대도시 근교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집촌 형성요인들 중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사회성, 미작농업에서의 공동작업, 외적방어 등이다(표 2).

또한, 산촌의 형성요인으로는 산지지형, 용수(用水)의 보편적 분포, 소유경지 분산, 건조강풍에 의한 화재피해

표 1. 촌락형태의 세부형태 및 중간형태 분류

연구	촌락형태	촌락형태			비고
		집촌	중간형태	산촌	
이찬·권혁재 (1973, 155)	소촌*, 집촌		-	산촌	*가장 단순한 집촌 단위
오홍석 (1980, 193-194)	집촌		-	산촌(고립농가·소촌*)	*hamlet, drubbel
홍경희 (1985, 172)	집촌		분산적 응집촌 혹은 성운상 촌락, 응집적 산촌	산촌	-
홍경희 (1985, 174)	집촌		산재한 선형 패턴, 분산 혹은 집합된 소촌*	산촌	* hamlet
홍경희 (1985, 184)	집촌		소촌(장촌, hamlet, Weiler)	산촌(고립농가)	-
최기엽 (1986, 138-141)	소촌(소규모 집촌, 소촌적 응집), 집촌*		-	산촌(소촌)	*규모화된 촌락

표 2. 집촌의 형성요인

형성요인	연구	김경성 (1963, 332-334)	이찬·권혁재 (1973, 138-155)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0, 502-503)	오홍석 (1980, 180-194)	정장호 (1980, 207-208)	홍경희 (1985, 171-204)	임덕순 (1992, 107)	오홍석 (1995, 7)	최운식의 (2000, 273)	전중한의 (2005, 189-193)	이전 (2011, 125-129)
평야지대				○			○					
빈수지대 용출지				○			○				○	
홍수 대치	○		○									
인간의 사회성	○	○	○	○			○				○	○
혈연관계	○						○				○	○
인종적 풍습							○					
장구한 취락역사					○		○	○				
외적방어			○		○		○				○	○
미작농업의 공동작업			○	○	○		○	○			○	
토지공동소유							○				○	
자치농업의 개방경지제							○					
계획적 촌락설정	○											
도로교차지				○								
대도시근교				○								

방지, 신개척지, 토지의 개인 소유·경작, 농가의 소유경지내 입지, 집촌형태 모촌(母村)에서 자촌(子村)으로의 파생, 대규모 기계화 발농사, 임업, 과수농업, 목축업, 개척·농경의 편리성, 상업적 농업의 복합적 토지이용 불편 해소, 농목지의 단지화(團地化), 상업적 농업지대의 농장제, 농업발달에 따른 이동성 증대, 양호한 치안상태, 교통·통신의 보급, 인구희박, 계획적 촌락계획, 짧은 개간역사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촌 형성요인들 중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신개척지, 양호한

치안상태, 용수의 보편적 분포, 농가의 소유경지내 입지, 계획적 촌락계획 등이다(표 3).

4. 촌락형태로서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 관계

“촌(村)이란 원래 집촌을 가리키는 것이다.”(권혁재, 2003, 459-463) 라든가 “거주의 원초적 형태는 집중(集中)이다.”(홍경희, 1985, 175) 라는 언급은 ‘집촌과 산촌

표 3. 산촌의 형성요인

형성요인	연구	김경성 (1963, 332-334)	이찬· 권혁재 (1973, 138-155)	건설부 국립 지리원 (1980, 502-503)	오홍석 (1980, 180-194)	정장호 (1980, 207-208)	홍경희 (1985, 171-204)	임덕순 (1992, 107)	오홍석 (1995, 7)	최은식 외 (2000, 273)	전종한 외 (2005, 189-193)	이전 (2011, 125-129)
산지지형		o			o		o					
용수의 보편적 분포		o			o	o	o					
소유경지 분산					o	o	o					
건조강풍에 의한 화재피해 방지				o		o						
신개척지		o		o		o	o				o	o
토지의 개인 소유·경작		o			o		o					
농가의 소유경지 내 입지		o		o	o		o					
집촌형태 모촌에서 자촌으로의 파생					o		o					
대규모 기계화 발농사							o	o			o	
임업											o	
과수농업				o								
목축업												o
개척·농경의 편리성		o										
상업적 농업의 복합적 토지이용 불편 해소							o					o
농목지의 단지화				o			o					
상업적 농업지대의 농장제		o										o
농업발달에 따른 이동성 증대							o					
양호한 치안상태				o	o	o	o					
교통·통신의 보급						o						
인구희박				o								
계획적 촌락계획		o		o			o				o	
짧은 개간역사					o				o			

의 발생적 인과관계 논의'에서 '집촌의 발생적 우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촌락형태로서의 '집촌의 발생적 우선성'은 주로 선천적 집단관계(홍경희, 1985, 175), 혈족관계(이찬·권혁재, 1973, 155; 홍경희, 1985, 175; 이전, 2011, 126-127), 상부

상조 인간본성(권혁재, 2003, 459-460), 사회적 동물(오홍석, 1980, 181; 전중환, 2005, 190), 군거성 동물(이찬·권혁재, 1973, 137), 외적방어·안전보장(이전, 2011, 126-127), 사람과 가족보호(이찬·권혁재, 1973, 138), 토지이용체계(이찬·권혁재, 1973, 155) 등에 기인하는 것

표 4. 집촌의 발생적 우선성에 관한 내용

연구	집촌의 발생적 우선성에 관한 내용
이찬·권혁재 (1973, 137)	사람은 군거성인 동물이다. 사람은 가족이나 씨족 내에 머물러 있으며, 집단을 형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이찬·권혁재 (1973, 138)	집촌을 이룰려고 하는 일차적인 충동은 사람과 가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강화된다. 이런 필요성은 영구적인 취락은 물론 일시적인 취락에도 적용된다.
오홍석 (1980, 181)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일정 장소에 집결하여 생태적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집단생활을 통해서 심리적 유대를 맺을 수 있는 동시에 현실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교류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간은 농업경영에 합리적인 산촌이라 할지라도 거주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홍경희 (1985, 175)	인간의 선천적 집단관계 및 혈족관계에서 고찰해서 거주 의 원초적 형태는 집중이다.
권혁재 (2003, 459-460)	촌락 또는 마을이란 원래 집촌을 가리킨다. 집촌 형성의 가장 큰 원인은 흩어져서 살기보다는 한 곳에 모여 상부상조하면서 살기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 같다.
전중환 (2005, 190)	인간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집촌이 가장 자연스러운 촌락형태이다.
이전 (2011, 126-127)	원시농경사회에서는 혈족관계가 증시되고 외적을 방어하고 안전을 보장하는데는 집단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했기 때문에 대체로 집촌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찬·권혁재 (1973, 155)	소촌은 진화적인 발달과정에 있어서 교회를 갖고 있는 촌락보다 훨씬 과거로 소급되는 가장 단순한 집촌의 단위일 수 있다. 영국 서부의 산촌은, 집촌이 이보다 앞서 있었다는 의미에서 이차적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5. 집촌과 연계되어 제시된 산촌의 발생요인에 관한 내용

연구	집촌과 연계되어 제시된 산촌의 발생요인에 관한 내용
이찬·권혁재 (1973, 137)	집촌이 먼저 형성되고, 산촌은 나중에 형성된 것이다. 집촌은 1차적이고, 산촌은 2차적 형태이다.
이찬·권혁재 (1973, 137-138)	이론적으로 작은 집촌이 일차적인 형태이고, 산촌은 모두 이차적인 형태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찬·권혁재 (1973, 155)	영국 촌락의 최초의 패턴이 거의 예외없이 집촌이었다. 소촌은 진화적인 발달과정에 있어서 교회를 갖고 있는 촌락보다 훨씬 과거로 소급되는 가장 단순한 집촌의 단위일 수 있다. 영국 서부의 산촌은, 집촌이 이보다 앞서 있었다는 의미에서 이차적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홍경희 (1985, 175)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산촌이 형성된다. 목축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안전이 보장된다면, 산재하는 것이 작업상 편리하다. 더우기 상업적 농업시대에 들어와서는 경지의 복합적 이용으로 불편을 느끼게 되어, 이것이 산촌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이리하여 18, 19세기 동안 많은 집촌이 모두 산촌으로 바뀌었다. 또, 유럽인의 식민지인 신대륙의 각지에서 많은 산촌이 형성되었다.
	고립농가 또는 hamlet은 초기에 주로 상속법의 작용으로 집촌이 분열되어 생겼다. 현재의 산촌은 모촌(母村)인 한 집촌이 포화상태에 달했을 때 거기서 파출하여 신개간지에 만들어진 자촌(子村, 지촌(枝村)이 대다수이나, 처음부터 산촌으로 개척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최기엽 (1993, 80)	산촌의 형성은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 개선에 의한 집촌으로부터의 이차적 형성에서 결과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시사하듯이 그것은 사회적 분화의 공간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 (2011, 126-127)	촌락의 기능에 따라 가옥의 집합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목축사회의 경우 안전이 보장된다면, 개별가옥이 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업적 경영시대에 들어와서는 복합적 경지이용에 불편을 느끼게 되어 산촌의 형성이 촉진되었다.

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

한편,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에서 ‘집촌의 발생적 우선성’은 ‘집촌이 1차적 형태이고, 산촌이 2차적 형태’임을 의미하는데(이찬·권혁재, 1973, 137-155; 최기엽, 1993, 80), 관련 연구들에서 집촌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는 ‘산촌의 발생요인’을 보면, ‘목축에 있어서의 안전보장 및 작업상 편리성’(홍경희, 1985, 175), ‘상업적 경영시대에 복합적 경지이용의 불편 해소’(홍경희, 1985, 175; 이진, 2011, 126-127), ‘상속법(相續法)의 적용’(홍경희, 1985, 175), ‘집촌의 포화상태’(홍경희, 1985, 175), ‘사회적 분화의 공간화’(최기엽, 1993, 8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

위의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에서 ‘집촌의 발생적 우선성’에 이어 ‘집촌과 연계된 산촌의 발생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 논의’에서 ‘집촌의 발생적 우선성과 배치되는 ‘산촌의 발생적 우선성’을 제기하는 연구도 존재하고 있다.

‘산촌의 발생적 우선성’은 “산촌이 집촌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집촌의 발생적 우선성’에 비해서 소수의 연구들이 제기하고 있긴하지만, 최운식의(2000, 273)의 “산촌은 간혹 집촌화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언급과 홍경희(1985, 180)의 “문화경관의 발생학적 연구도 중세 이전에 산촌이나 소촌이 많았던 것을 나타낸다. 소촌은 고대의 촌락공동체적 결합이 약했다는 결론에 대한 유력한 지주가 되었다.” 등의 언급이 이에 해당된다(표 6).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에 관해서 앞에서 살펴 본 ‘집촌의 발생적 우선성’과 ‘산촌의 발생적 우선성’ 이외에 ‘산촌 내에서 고립농가와 소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를 제시한 연구도 있는데, 오홍석(1980, 194)의 연구가 그것이다. 오홍석(1980, 194)에 의하면, “고립농가는 혈연관계 차원에서 소촌에서 분화된 것”인데, 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산촌의 발생적 우선성에 관한 내용

연구	산촌의 발생적 우선성에 관한 내용
최운식의(2000, 273)	산촌은 간혹 집촌화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홍경희(1985, 180)	문화경관의 발생학적 연구도 중세 이전에 산촌이나 소촌이 많았던 것을 나타낸다. 소촌은 고대의 촌락공동체적 결합이 약했다는 결론에 대한 유력한 지주가 되었다.

“북부 유럽의 삼림지역에서 Einzelhof(고립농가)가 발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립농가는 개척의 역사가 짧고 지형의 제약에 의하여 경지가 소규모로 분산된 산간, 또는 황지(荒地)의 공통적인 취락형태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 형태는 기초적인 생활공동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hamlet와 drubbel 등 소촌에서 제2차적 분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때에 친자촌(親子村)의 파생관계에서 그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오홍석, 1980, 194)

이외에도,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에서 전체적으로는 ‘집촌의 발생적 우선성’에 해당하여 “골 입지 집촌에서 구릉지 입지 산촌으로 진화하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유사 연구들과 차이가 있는 연구가 있는데, 최기엽(1986, 134-135)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 연구는 태안반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을 제시한 것인데, 이 연구에 의하면, 골 입지 집촌은 소촌(소규모 집촌, 소촌적 응집)에서 집촌(규모화된 집촌)으로 진화하고, 구릉지 입지 산촌은 집촌(규모화된 집촌)에서 소촌형태 산촌으로 진화한 것이다. 최기엽(1986, 134-135)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태안반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촌락은 1~2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역적 전개가 이루어졌는데, 1단계 집촌 형성의 경우 통일신라~18세기 중반에 골(개석곡구)에서 소규모 집촌 내지 소촌적 응집과 같은 소촌형태로 시작해서 집촌의 규모화가 완료됐고, 2단계 산촌 형성의 경우 일제시대~1960년대 간에 걸쳐 구릉지 사면에서 소촌형태로 시작되어 소촌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문중(1986, 368-369; 1988, 141-144; 1989, 294-295; 1991, 331)도 최기엽(1985, 104; 1986, 134-135; 1993, 73-78) 등과 마찬가지로 태안반도를 사례로 하여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 측면에서 ‘집촌의 발생적 우선권’을 제시하면서 ‘집촌과 산촌의 분화양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시적으로 보면, 최기엽(1985, 104; 1986, 134-135; 1993, 73-78)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이문중(1986, 368-369; 1988, 141-144; 1989, 294-295; 1991, 331)에 의하면,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과정은 1단계로 18세기 중반 이전에 집촌이 산록·골·해만에서 형성되었고, 2단계로 1930년대 이후 산촌이 구릉지에서 형성되었는데, 산촌 혹은 소촌은 해만개척에 이은 삼림 개척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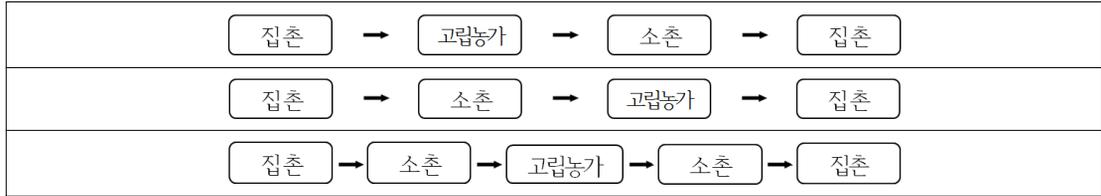


그림 1. 일반적인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 유형'

출처 : 권혁재(2003, 459-463), 홍경희(1985, 175), 오홍석(1980, 181-189), 전중환(2005, 190), 이진(2011, 126-127), 이찬·권혁재(1973, 137-155), 최윤식외(2000, 273) 등.

이상에서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에 대해 일반적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과 태안반도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관했다. 우선, 권혁재(2003, 459-463), 홍경희(1985, 175), 오홍석(1980, 181-189), 전중환(2005, 190), 이진(2011, 126-127), 이찬·권혁재(1973, 137-155), 최윤식외(2000, 273) 등에 의해 수행된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 관련 일반적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집촌의 발생적 우선성', '산촌의 발생적 우선성', '산촌 내에서 고립농가와 소촌의 관계' 등인데, 이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체로 '집촌 → 고립농가 → 소촌 → 집촌', '집촌 → 소촌 → 고립농가 → 집촌' 및 '집촌 → 소촌 → 고립농가 → 소촌 → 집촌'의 세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그림 1).

5. '촌락형태의 형성에 관한 일반적 이론'의 요약

촌락형태는 촌락의 구성단위인 가옥 및 대지의 결합도, 즉 밀도에 의해 집촌과 산촌으로 구분되는데, 집촌은 특정 장소에 가옥이 밀집하여 집단을 이루는 촌락이고, 산촌은 개개의 가옥이 분산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촌락이다. 가옥의 집산은 지형조건, 물의 제약, 방어의 필요성, 혈연적 관계, 토지이용 방법, 토지소유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가옥의 소밀정도는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성립의 역사가 장구한 곳에 집촌이, 성립의 역사가 연천한 곳에 산촌이 각각 형성된다.

촌락형태는 집촌의 경우 '소규모 집촌 또는 소촌적 응집 수준의 소촌'과 '규모화된 촌락으로서의 집촌'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규모화된 집촌을 다시 형태, 기능 등에 따라 귀촌, 열촌, 노촌, 가촌, 환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촌의 경우 '고립농가와 '소촌'으로 세분할 수 있다. 집촌과 산촌의 중간형태 내지 과도형태의 경우 분산적 응

집촌, 성운상 촌락, 응집적 산촌, 산재한 선형 패턴, 분산 혹은 집합된 소촌, 소촌(장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촌락형성요인은 집촌의 경우 인간의 사회성, 미작농업에서의 공동작업, 외적방어 등이 주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고, 산촌의 경우 산개척지, 양호한 치안상태, 용수의 보편적 분포, 농가의 소유경지내 입지, 계획적 촌락 계획 등이 주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는 '집촌의 발생적 우선성', '산촌의 발생적 우선성', '산촌 내에서 고립농가와 소촌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는 대체로 '집촌 → 고립농가 → 소촌 → 집촌', '집촌 → 소촌 → 고립농가 → 집촌' 및 '집촌 → 소촌 → 고립농가 → 소촌 → 집촌'의 세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III.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

본 장에서는 앞에서 개관한 '촌락형태 형성에 관한 일반적 이론'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분포,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형성요인 등에 대해 개관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에 대한 개관은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1.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분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래로 발달한 촌락은 집촌이 많고(홍경희, 1985, 196;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95; 권혁재, 1995, 458; 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 2000, 121; 정장호, 1989, 272; 이문중, 1996, 222),

집촌의 대부분은 가옥이 불규칙하게 밀집되어 있는 괴촌이다(권혁재, 1995, 458). 산촌형태에 속하는 촌락은 드물다(홍경희, 1985, 196).

우리나라는 인구부양능력이 크고 많은 공동작업을 요

하는 벼농사 농경문화, 유교문화의 영향, 풍수사상의 영향 등으로 대부분의 농촌이 집촌의 형태를 가진다. 즉,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집촌과 산촌의 분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벼농사의 시행

표 7.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형성요인

연구	촌락형태별 형성요인	촌락형태	형성요인
건설부국립지리원 (1980, 503-504)		집촌	미작(米作)에서 '수리시설 축조관리' 및 '영농작업의 공동작업', 동족부락(대가족제도), 해안·침식곡의 자연용수(自然湧水)
		산촌	고원·산악·산지, 전작(田作), 과원(果園)
정장호 (1980, 207-208)		집촌	미작의 공동작업, 음료수 구득, 동족촌
		산촌	구릉지대·산악지방의 경지분산, 전작의 개별적 경영양식
이문중 (1983, 63)		집촌	답작
		산촌	산지·고원·구릉지대, 전작
홍경희 (1985, 184-201)		집촌	미작의 공동작업, 배산임수·풍수사상, 동족부락
		산촌	산지, 전작, 간척지·개간지, 과수원지, 근교농업지대
이문중 (1986, 368)		집촌	-
		산촌	고원·산지, 화전(火田), 완사면·탁상침식지
임택순 (1992, 107-108)		집촌	배산임수
		산촌	구릉·산지, 밭지대, 과수원지대
오홍석 (1995, 7)		집촌	유구한 역사
		산촌	짧은 역사, 과원·간척·산간지역
이문중 (1996, 222)		집촌	지형·생활용수 등의 자연적 조건, 수전농업의 공동관리·협력관계, 대가족제도
		산촌	고원·산지, 평탄한 완사면, 화전
제29차세계* (2000, 121-122)		집촌	동족촌, 배산임수·풍수지리, 미작의 공동작업, 석회암지대·용암지대의 음료수 구득장소 제한
		산촌	고원·산맥·산간, 전작·화전, 과수원·개척촌·간척촌
대한민국의학술원 (2002, 189-190)		집촌	지형·생활용수 등의 자연적 조건, 수전농업의 공동관리·협력관계, 대가족제도
		산촌	산간, 평탄한 완사면
권혁재 (2003, 458-462)		집촌	오랜 역사, 산기슭의 골에 입지, 동족촌의 동족통합력, 상부상조의 인간본성, 벼농사의 '수리시설 축조관리' 및 '영농에서의 협동', 농토의 분산성, 해안의 용천, 간척촌
		산촌	고원·산지·산간·구릉지대, 짧은 촌락 역사, 농가의 농경지 근접, 밭농사
국토지리정보원 (2003, 144)		집촌	집약적 벼농사
		산촌	밭농사
전종환외 (2005, 188)		집촌	가옥근접 밀집구성의 일반성
		산촌	산지·산맥, 화전
이전 (2011, 127)		집촌	논농사의 집약적 토지이용, 농업생산활동의 공동작업(수리·관개·배수·경작·수확), 동족촌의 혈연적 결합, 배산임수·풍수사상, 용수와 지형의 제약, 용수 취득이 쉬운 곳(해안 용천대)에 가옥·경지 밀집
		산촌	밭농사, 산맥·산악·구릉지의 농경지 분산, 화전, 과수재배

주 : *제29차세계는 '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를 의미함.

여부가 주요한 요인이 된다(국토지리정보원, 2003, 144).

우리나라의 경우 집촌은 평야지대에서, 산촌은 산간 지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중부 서해안의 일부 평야지대에서는 비교적 평탄한 사면상에도 산촌이 발달하여 기존의 견해가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대한민국학술원, 2002, 190; 국토지리정보원, 2003, 144; 이문중, 1996, 222).

즉, 우리나라의 촌락은 서남부 평야지대에서는 집촌이,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 일대에서는 산촌이 일반적인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인간의 거주 역사가 오래되고 평탄한 구릉지가 대부분인 태안반도 지역에서 산촌이 널리 분포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을 끌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116; 이문중, 1996, 222; 오홍석, 1980, 368;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97; 대한민국학술원, 2002, 190; 국토지리정보원, 2003, 144).

2.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형성요인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198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단속적(斷續的)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한 연구들만 나열하면, 건설부국립지리원(1980, 503-504), 정장호(1980, 207-208), 이문중(1983, 63), 홍경희(1985, 184-201), 이문중(1986, 368), 임덕순(1992, 107-109), 오홍석(1995, 7), 이문중(1996, 222), 제29차세계지리학회회조직위원회(2000, 121-122), 대한민국학술원(2002, 189-190), 권혁재(2003, 458-462), 국토지리정보원(2003, 144), 전중환외(2005, 188), 이전(2011, 127)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촌락지리, 한국지리 등에 관한 서적 및 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들에서 제시된 촌락의 형태별 형성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집촌의 경우 지형, 용수

표 8.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형성요인: 집촌

형성요인		연구													
		국립지리원(1980, 503-504)	정장호(1980, 207-208)	이문중(1983, 63)	홍경희(1985, 184-201)	이문중(1986, 368)	임덕순(1992, 107-108)	오홍석(1995, 7)	이문중(1996, 222)	제29차(2000, 121-122)	학술원(2002, 189-190)	권혁재(2003, 458-462)	국토지리정보원(2003, 144)	전중환외(2005, 188)	이전(2011, 127-129)
자연적 조건: 지형·용수	배산입수	○	○	○	○		○	○	○	○	○	○		○	
	해안침식곡	○													
미작	석회암·용암지대								○						
	공동작업	○	○	○	○				○	○	○	○		○	
경지분포	집약적 토지이용											○		○	
	주거와 경지의 분리													○	
	경지연속성													○	
유구한 촌락 역사	농토분산										○				
	동족부락	○	○		○				○	○	○	○		○	
가옥근접 밀집구성	상부상조										○				
	간척촌										○		○		

주 1: 국립지리원은 '건설부국립지리원'을, 제29차는 '제29차세계지리학회회조직위원회'를, '학술원'은 '대한민국학술원'을 각각 의미함.

주 2: '해안침식곡'은 '해안침식곡의 자연용수대'를, '석회암·용암지대'는 '석회암·용암지대의 제한적 음료수 구득장소'를, '공동작업'은 '수리시설 축조관리 및 영농작업의 공동작업'을, 농토분산은 '농가의 농토분산'을 각각 의미함.

(用水) 등의 자연적 조건, 미작(米作), 경지 분포, 유구한 촌락 역사, 동족부락, 상부상조의 인간본성, 가옥근접 밀집구성의 일반성, 간척촌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산촌의 경우 산지지형에 의한 농경지 분산, 전작의 개별적 농업 경영양식, 화전(火田)·과원(果園)·간척지·개간지·근교 농업지대 등과 같은 특이 농업형태, 농가의 농경지 근접, 짧은 촌락 역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7, 8 및 9).

여기서,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형성요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집촌의 경우 '배산임수의 골 입지'(지형·용수와 같은 자연적 조건 중 산지-하천간 경사변환선상의 골 입지), '미작에서의 공동작업'(수리시설 축조·관리 및 영농작업에서의 공동작업·협동) 및 '동족부락의 동족통합력'(유교적 전통에 의한 대가족제도·동족통합력)이 여러 연구들에서 주요 촌락형성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3개의 주요 요인들 중에서도 '배산임수의 골 입지'가 가장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고, 그 다음은 '미작에서의 공동작업' 및 '동족부락의 동족통합력'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산촌의 경우 '고원·구릉·산악 등의 산지지형에 의한 농경지 분산'과 '전작의 개별적 농업경영양식'이 여러 연구들에서 주요 촌락형성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촌락형태 중 집촌은 배산임수의 골에 입지하여 동족부락을 형성하여 미작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산촌은 고원·구릉·산악에 입지하여 전작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각각 주요 형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형성요인을 개관한 결과, 형태별 촌락으로서의 집촌과 산촌의 입지 및 농업 유형에서 결정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촌락의 입지에 있어서 집촌은 배산임수의 골에, 산촌은 고원·구릉·산악 등의 산지에 각각 입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촌락의 농업유형에 있어서 집촌은 논농

표 9.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형성요인: 산촌

형성요인		연구 국립 지리원 (1980, 503-504)	정장호 (1980, 207-208)	이문중 (1983, 63)	홍경희 (1985, 184-201)	이문중 (1986, 368)	임덕순 (1992, 107-108)	오홍석 (1995, 7)	이문중 (1996, 222)	제20차 세계 (2000, 121-122)	학술원 (2002, 189-190)	권혁재 (2003, 458-462)	국토 지리 정보원 (2003, 144)	전종한 외 (2005, 188)	이전 (2011, 127-129)
산지지형에 의한 농경지 분산	고원· 구릉· 산악	○	○	○	○	○	○	○	○	○	○	○		○	○
	평탄한 완사면, 탁상 침식지					○			○		○				
전작의 개별적 농업경영양식: 개별적 노력동원체계		○	○	○	○		○			○		○	○		○
특이 농업 형태	화전				○	○			○	○				○	○
	과원	○			○		○	○		○					○
	간척지				○			○		○					
	개간지				○					○					
	근교 농업 지대				○										
농가의 농경지 근접												○			
짧은 촌락 역사								○				○			

주 : '국립지리원'은 '건설부국립지리원'을, '제20차세계'는 '제20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를, '학술원'은 '대한민국학술원'을 각각 의미함.

사를, 산촌은 밭농사를 각각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각각 주요 형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집촌의 경우 산촌과 달리 동족부락이 주요 형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의 요약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분포는 서남부 평야지대에서는 집촌이,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 일대에서는 산촌이 일반적인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인간의 거주 역사가 오래되고 평탄한 구릉지가 대부분인 태안반도 지역에 산촌이 널리 분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형성요인은 집촌과 산촌의 입지 및 농업유형에서 결정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촌락의 입지에 있어서 집촌은 배산임수의 골에, 산촌은 고원·구릉·산악 등의 산지에 각각 입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촌락의 농업유형에 있어서 집촌은 논농사를, 산촌은 밭농사를 각각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각각 주요 형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집촌의 경우 산촌과 달리 동족부락이 주요 형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

본 장에서는 앞에서 개관한 ‘촌락형태 형성에 관한 일반적 이론’ 및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에 기반하여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에 대해 개관한다.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 중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의 경우 태안반도 촌락형태의 분류,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특성,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과정 및 형성요인,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시기, 태안반도 촌락형태로서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 등에 대해 개관하고, ‘태안반도 촌락형태 변화의 특성’의 경우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최근 변화양상, 태안반도 산촌의 제한적 집촌화 경향 및 형태적 관성 등에 대해 개관한다.

1.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

1) 태안반도 촌락형태의 분류

태안반도 촌락형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태안반도의 집촌에 대해서 별칭으로 표기하거나 세부형태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촌의 경우는 단순히 산촌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세부형태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해 보다 상세히 보면, 태안반도의 산촌을 세부형태로 분류하지 않고 산촌으로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로는 태안반도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해당되는데, 이봉준(1977, 236), 건설부국립지리원(1980, 504), 오홍석(1980, 191-192), 정장호(1980, 208), 최기엽(1986, 134-135), 이문중(1983, 65), 홍경희(1985, 198), 정장호(1989, 273-274), 임덕순(1992, 108), 권혁재(1995, 254), 서산시지편찬위원회(1998, 116-131), 제29차세계지리학회대회조직위원회(2000, 122-123), 권혁재(2003, 462-464), 전종환외(2005, 193-194), NGII(2010, 158), 이전(2011, 131) 등이 그에 해당된다.

태안반도의 산촌을 세부형태로 분류하는 경우로는 최기엽(1985, 104), 이문중(1986, 368-369), 이문중(1988, 144), 이문중(1989, 294), 이문중(1991, 331), 최기엽(1993, 73-80), 국토지리정보원(2003, 145), 국토지리정보원(2008, 296-297) 등이 있는데, 이들은 태안반도 촌락형태를 분류하면서 집촌 이외에 산촌을 세부형태로 분류하거나 집촌과 산촌의 중간형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즉, 최기엽(1985, 104), 이문중(1986, 368-369), 이문중(1991, 331) 및 국토지리정보원(2008, 296-297)은 집촌 이외에 산촌의 세부형태로 ‘산촌과 소촌’을 제시하고 있고, 최기엽(1993, 73-80)은 집촌 이외에 산촌의 세부형태로 ‘고립 혹은 소촌적인 촌락 패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문중(1988, 144), 이문중(1989, 294) 및 국토지리정보원(2003, 145)은 집촌 이외에 산촌의 세부형태로 ‘산촌 또는 소촌’을 제시하면서 ‘골보다는 산촌, 구릉지보다는 집촌적 형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산촌은 일반적으로 ‘고립농가(고립가옥, 고립장택) 또는 소촌’으로 구성되므로³⁾(김경성, 1963, 334; 오홍석, 1980, 193-194; 홍경희, 1985, 184; 최기엽, 1993, 74; 이전, 2011, 128) 태안반도의 산촌형태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도 ‘산촌’이라는 총칭적 표기 이외에 세부형태 내지 하부형태로 표기하는 경우 산촌형태를 ‘산촌 또는

소촌'으로 표기하기보다는 '고립농가 또는 소촌'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특성

우리나라 촌락의 집촌·산촌 형태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촌락의 입지 및 농업형태로 볼 수 있는데, 촌락의 입지는 집촌의 경우 배산임수의 골로, 산촌의 경우 고원·구릉·산악으로 각각 나타나고, 촌락의 농업유형은 집

촌의 경우 미작으로, 산촌의 경우 전작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촌락의 집촌·산촌 형태를 태안반도에 국한해서 보면, 집촌의 경우 입지는 산록·개석곡지·골로, 농업유형은 답작으로 나타나고, 산촌의 경우 입지는 구릉지사면·저산성산지·완사면·탁상침식면·삭박면으로, 농업유형은 전작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표 10).

위와 같은 태안반도 촌락의 집촌·산촌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에 대해 부연하면, 집촌은 입지 및 농업유형의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 상태와 대체로 동

표 10.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특성

연구	촌락형태	입지	농업유형	비고
이봉준 (1977, 236)	산촌	저산성 산지, 구릉지	전작	-
건설부국립지리원 (1980, 504)	산촌*	구릉성 산지	전작	*산거(散居)
오홍석 (1980, 191-192)	산촌*	구릉성 산지	전작	*산발적 용거 (散發的 雄據)
정장호 (1980, 208)	산촌	구릉지, 산지사면	밭농사*	*개간
이문중 (1983, 65)	산촌	구릉성 산지	전작	-
최기엽 (1985, 104-105)	집촌*	산록, 개석곡지(골)	답작	*소규모 기초지역적 단위로 시작해서 규모화된 집촌으로 발전
	산촌*	탁상침식지, 평탄지	전작**	*최초엔 소용집같은 소촌적 형태로 이행 **최근 반답(反畓)
홍경희 (1985, 198)	산촌	저산성 산지	-	-
이문중 (1986, 368-369)	집촌	산록, 골(개석곡지)	-	-
	산촌 또는 소촌	탁상침식면, 삭박면	밭농사*	*개간
정장호 (1989, 273-274)	산촌	구릉지, 산지사면	밭농사*	*개간
최기엽 (1986, 134-141)	집촌*	산록, 개석곡지(골)	답작	*소규모 기초지역적 단위로 시작해서 규모화된 집촌으로 발전
	산촌*	평탄지, 구릉지	전작*	*최초엔 소용집같은 소촌적 형태로 이행 **최근 반답
이문중 (1988, 141-144)	집촌	산록, 골	논농사	-
	산촌 내지 소촌	구릉지	밭농사	-
	골보다 산촌, 구릉지보다 집촌적 형태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	논농사(간척지), 밭농사(구릉지), 염업(간척지)*	*배후 임야개척과 전면 해만개척의 동시 진행
이문중 (1989, 294)	집촌	산록, 골	-	-
	산촌 또는 소촌	구릉지	-	-
	골보다 산촌, 구릉지보다 집촌적 형태	골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	-
이문중 (1991, 331)	산촌 내지 소촌	-	-	-
임덕순 (1992, 108)	산촌	구릉, 평지	밭농사, 과수원	-

표 10.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특성(계속)

연구	촌락형태	입지	농업유형	비고
최기엽 (1993, 73-80)	집촌*	소하곡, 개석곡구·개석곡지·골, 개석지 말단부	논	*소규모 촌락으로 시작
	고립 혹은 소촌적인 촌락 패턴*	수평적 침식면, 침식면상 평탄지, 탁상침식면	전지(田地)**	*경지화(전작지화)에 이은 반답 과정에서 산촌 형성 후 소촌으로 진전 **최근 반답
권혁재 (1995, 254)	산촌	구릉지	밭농사*	*개간, 최근 반답(관정 개발)
서산시지 편찬위원회 (1998, 116-131)	집촌	평야	논농사	-
	산촌	구릉지	밭농사	-
제29차세계 (2000, 122-123)	산촌	구릉지	밭농사	-
권혁재 (2003, 462-464)	산촌	구릉지	밭농사*	*관정 개발
국토지리정보원 (2003, 145)	집촌	-	-	-
	산촌 또는 소촌	구릉지	밭농사	-
	골보다 산촌, 구릉지보다 집촌적 형태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	-	-
전중한의외 (2005, 193-194)	산촌	구릉성 산지(완사면 또는 구릉사면)	밭농사	-
충청남도지 편찬위원회 (2006, 97-98)	집촌	골(개석곡구)	벼농사	-
	산촌	구릉지역	밭농사*	*개간, 최근 개답
국토지리정보원 (2008, 296-297)	산촌 또는 소촌*	구릉지	밭농사	*우리나라 대표적 산촌경관
NGII (2010, 158)	산촌	비고원지대	밭농사*	*1960년대 경지확장 위한 대단위 해만개척과 연관
이전 (2011, 131)	산촌	구릉지	밭농사	-

주 1 : '제29차세계'는 '제29차세계지리학회조직위원회'를 의미함.

주 2 : 연구의 일부에 촌락형태로 '산촌'만 제시하고, '집촌'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본래의 연구에서는 태안반도의 촌락형태로 산촌 이외에 집촌도
제시하고 있으나, 집촌의 입지 및 농업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아서 표 안에 '집촌'을 표기하지 않은 것임.

일한 상태, 즉 입지는 배산임수와 골로, 농업유형은 미작
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산촌은 입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반적 상태인 고원·구릉·산악과 달리 평탄한 완사면과
탁상침식지로, 농업유형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반적 상
태와 유사한 전작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3)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과정 및 형성요인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는 그간 여러 연구
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대체

로 촌락의 형태별 형성과정 및 형성요인의 측면에서 이
루어졌으며, 주요 연구는 이문중(1986, 368-369; 1988,
141-144; 1989, 294-295; 1991, 331), 충청남도지편찬위
원회(2006, 95), 최기엽(1985, 104; 1986, 134-135; 1993,
73-78), 국토지리정보원(2003, 144-145; 2008, 296-297)
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내용
을 요약하면, 태안반도의 촌락형성 과정은 '집촌과 산촌
의 분화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부연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석곡지에서 벼농사가 가능한 경우 집촌이 형성되었고, 구릉지에서 밭농사만 가능한 경우 산촌이 형성되었다. 즉, 태안반도에서 집촌과 산촌의 분화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벼농사의 시행 가능성 여부'이다. 둘째,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를 보면, 집촌이 통일신라~18세기 중반에 걸쳐 우선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산촌이 집촌과 관련하여 1930-1960년대에 발생했다. 셋째, 집촌과 산촌, 특히 집촌의 형성과정에서 동족지연성(同族地緣性)이 큰 역할을 했다. 넷째, 산촌의 형성과정에서 일괴경지현상(一塊耕地現象)과 경지-가옥연접현상(耕地-家屋連接現象)이 큰 영향을 끼쳤다.

위와 같은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문중(1986, 368-369; 1988, 141-144; 1989, 294-295; 1991, 331)에 의하면,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은 1~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단계로 집촌이 형성되었고, 2단계로 산촌이 형성되었다. 집촌은 골에 입지했고, 산촌은 해만개척에 이은 삼림개척의 과정에서 형성되어 구릉지에 입지했다. 특히 1~2단계에서 동족촌의 공간확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기엽(1985, 104; 1986, 134-135; 1993, 73-78)에 의하면,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은 1~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단계로 집촌이 형성되었고, 2단계로 산촌이 형성되었다. 집촌은 개석곡지(골)에 충전(充填)되는 형태로 입지했고, 산촌은 침식평탄면(탁상침식면, 삭박면)에 입지하여 사회적 경관을 형성했다.

국토지리정보원(2003, 144-145; 2008, 296-297)에 의하면, 집촌과 산촌의 분화요인은 벼농사의 시행여부인데, 벼농사 가능지역에는 대규모 집촌이 형성되었고, 밭농사 중심지역에서는 산촌 또는 소촌이 형성되었다.

특히, 이문중(1986, 368; 1988, 142)과 최기엽(1985, 104; 1986, 134)은 태안반도 촌락형태별 형성시기 및 주민구성과 관련하여 대체로 유사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1단계로 18세기 중엽 이전에 개석곡지(골)에 동족지연공동체로서의 집촌이 형성되었고, 2단계로 1930년대 중반 이후 탁상침식지에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 집단으로 구성된 산촌이 형성되었다.

한편,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이문중(1988, 141-144; 1986, 368-369; 1989, 294-295; 1991, 331),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98-99), 최기엽(1985, 104-105; 1986, 134-135; 1993, 73-78) 및 국토지리정보원(2003,

144-145; 2008, 296-297)의 연구성과를 논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문중의 태안반도 촌락형성론

① 이문중(1988, 141-144)

태안반도의 집촌은 18세기 중엽 이전에 형성되었는데, 산록·골에 입지하여 자연유수를 이용한 수리관계에 의해 수전농업에 종사했다. 소촌을 포함한 산촌은 1930년대 중반 이후 2가지 경로로 형성되었는데, 하나는 구릉지의 임야·황무지·한광처(閒曠處)에서 밭농사에 종사하면서 형성된 산촌이고, 다른 하나는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 해만개척에 의해 어전(漁前)이나 어뽕을 운영하면서 집촌을 형성한 이후 또는 집촌 형성과 동시에 구릉지에서 임야개척에 의해 밭농사에 종사하면서 형성된 산촌으로 사회적 촌락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산촌 형성의 경우 '임야개척과정에서 경지와 가옥을 연결시키는 택지선정방식'과 '상속법에 의한 자가(子家)의 원격분산을 유발하는 분가양식(分家樣式)'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태안반도 산촌의 경우 최초 입향조의 정착지에 가옥집중에 의한 집촌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간경과에 비례한 동족의 집촌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대신 파별집중(派別集中)을 중심으로 한 자연촌이 세분된 지형단위에 적응하여 1~2개, 2~3개의 응집(凝集)으로 구분되면서 산촌·소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② 이문중(1986, 368-369)

태안반도의 산록·골(개석곡지)에 자연유수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곳과 해안에서 어업·농업을 담당하던 취락은 18세기 중엽 이전에 동족지연공동체(同族地緣共同體)로서의 집촌을 형성하였고, 근대까지도 왜송임지(矮松林地) 또는 황무지로 잔존해 온 내륙의 탁상침식면(삭박면)에는 1930년대 이후 신개간지 촌락이 산촌(소촌)의 형태로 발달되었다.

특히, 태안반도에서 산거양식(散居樣式)의 전형적 산촌의 형성은 공동체의 성격이 혈연공동체에서 지연공동체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가옥과 토지의 결합이 가옥과 가옥의 결합보다 강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태안반도의 산촌에서는 '가옥경지 연접현상'과 '일괴보유 경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초기 개간·입식과정에서 집단적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

· 개별적 입식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하며, 동시에 자기 소유 토지에 가옥과 경지를 가지려는 분가양식의 관습에 기인한 것이다.

③ 이문중(1989, 294-295)

태안반도에서 촌락의 형성은 인간집단에 의한 개척의 역사로서, 단위지역(전통지역)에서 해만개척, 임야개척 및 씨족집단의 촌락형성 3요인은 서로 연관하여 작용하며, 해만개척과 임야개척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촌락은 산록·골에서는 집촌 형태, 구릉지에서는 산촌이나 소촌 형태, 골·바다 연접부에서는 집촌과 산촌의 중간형태(골보다는 산촌적 형태, 구릉지보다는 집촌적 형태)를 각각 취했다.

한편, 산촌 혹은 소촌의 형성은 자손들의 분가에 의한 동족촌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동족촌의 형성은 시간의 진전과 함께 몇 개의 분산 이주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인근에 2차·3차의 분가적 확산, 즉 혈통단위 파벌집단의 독립과 밀접히 연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파벌중심의 자연촌은 다시 세분된 지형단위 등에 적용하여 1~2개 혹은 2~3개의 응집으로 나누어졌다.

④ 이문중(1991, 331)

태안반도의 경우 촌락의 형성과 더불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집촌화 과정이 누적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촌의 형성은 파벌집중 혹은 지형단위 등에 적용하여 1~2개 혹은 2~3개의 응집으로 나누어짐으로써 산촌 혹은 소촌의 형태로 진전되어 왔다.

⑤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98-99)⁴⁾

충청남도 지역에서 집촌은 하천 연변의 자연적 지표수 이용 가능지역, 구릉지 말단, 해안 근처 개석곡구(골)의 우물·샘에 입지하여 벼농사를 시행하고 있고, 산촌은 지하수면이 깊은 임야·황무지 등의 구릉지역에 입지하여 개간에 의한 밭농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촌의 경우 “혈연관계에 의해 본가(本家)에서 자가(子家)로의 원거리 분가를 하는 현상”, “자기소유 토지가 아니면, 가옥을 짓지도 빌려주지도 않는 독특한 분가양식, 즉, 분가시 자가가 자기소유 경지내에 입지하는 가옥(택지)-경지 연결현상”에 의해서 그의 형성이 촉진된다.

(2) 최기엽의 태안반도 촌락형성론

① 최기엽(1993, 73-78)

태안반도 일대의 촌락형성은 집촌에 이어 산촌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집촌은 세대증식분가에 따른 공간적 확장(지역적 확장)이 골(개석곡지)에서 골로 이어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기존 촌락은 상부의 탁상침식면으로 면적으로 확장되지 않았다. 즉, 상부침식지에 비해 보다 나은 기반 위에서 성장한 기존 촌락은 침식지 개간은 회피하고, 인근의 기존 경지 또는 골을 개간하여 골에 동족자연공동체로서의 집촌을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개석곡지의 말단부에는 조선시대부터 수리(水利) 혜택을 소규모 촌락이 발달하였다.

산촌은 골의 입지·충전이 완료되어 침식평탄지(탁상침식면·삭박면)의 개간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되었으며, 다양한 이주민 집단에 의한 사회공간과 사회경관을 형성했다. 특히, 수리가 좋지 않아 임야지로 잔존하던 침식평탄지는 근·현대에 이르러 대농업자본의 개입이나 저수지·도수로 축조에 의해서 수리 혜택을 받으면서 경지화되고, 이어서 밭이 논으로 변하는 반답과정(反畝過程)을 통해서 산촌·소촌을 형성했다.

태안반도의 골(개석곡지)에 집촌이 충전되고, 이어서 침식평탄지에 산촌이 형성되면서 촌락의 전체적 존재양상은 개석곡지의 집촌시대가 주변에서 침식평탄지의 산촌지대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을 형성하여, ‘집촌시대와 산촌시대간의 대립적 위상관계’, 즉 산촌시대의 지표내용(사회적 경관)과 공간적 범위의 ‘정합적 대응관계’(整合的 對應關係)를 형성했다. 특히, 다양한 이주민 집단에 의한 산촌경관의 형성은 장소의 사회화, 사회적 경관의 형성 및 사회적 공간분화를 수반했다.

사회적 경관은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구성에 의해 주변지역과 구별되는 사회적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 경관으로 “침식평탄지 → 자본투입의 사회적 과정 → 노동과정(임야개간) → 경관내용 형성” 도식은 ‘경관내용과 공간범위의 정합관계’를 선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산촌경관은 ‘개간’이라는 노동과정이 장소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구현된 것으로, ‘개간’이란 노동과정은 대토지 자본가의 개입이나 수리시설의 축조라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침식평탄지에 그것의 결과적 산물로서의 산촌경관을 한정시켰다.

산촌의 형성은 경제적·사회적 조건의 변화, 개선에 의한 ‘집촌으로부터의 이차적 형성’에서 결과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시사하듯이 그것은 ‘사회적 공간분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탁상침식지의 개간과 더불어 형성된 경관이란, 그 역사적·사회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시대마다의 사회경제적 단면들과 그 단면들에서 그러한 특징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사회집단의 분화와 그것들의 공간화 과정의 표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② 최기엽(1985, 104-105; 1986, 134-135)

태안반도 일대의 촌락들은 1차적으로 형태(집촌과 산촌)에 의해 두 유형으로 구분되고, 각 유형은 지형환경, 형성시기, 사회적 특성에 있어서도 이원화되었는데, 집촌은 전통적(기존) 촌락으로, 산촌은 신개간지 촌락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집촌과 산촌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집촌은 18세기 중엽 이전에 산록이나 개석곡지에 입지한 동족자연공동체에 의해 형성되었고, 산촌은 1930년대 중반이후 일제토지자본 상륙, 1960년대 수리시설 완공 등의 사회경제적 과정에서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 집단이 20m 고도 내의 평탄지에 입지하면서 형성되었다. 부연하면, 전통적 기존촌락으로서의 집촌의 생활기반은 자연유수 관계에 의한 답작농경 또는 해안의 특화기능이었다.

집촌 중 비교적 큰 규모의 촌락은 경지기반 면적이 보다 넓었던 곳, 자연유수의 이용이 원활했던 곳, 특화기능을 수행했던 곳에 입지했고, 소규모의 기초지역적 단위 촌락은 침식평탄지 말단의 협소한 개석곡지(골)에 입지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기초지역적 규모와 입지의 대응은 촌락민의 사회집단적 특성의 지역분화를 반영했다.

산촌의 경우 해안으로 향하여 완만하게 기울고 있는 표면유수가 없는 저평한 침식면에 입지해 있는데, 삼림지는 최초엔 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반답과정을 경과하여 구획정리된 수전으로 전환되었으며, 산촌경관의 전반적 인상은 단조로움이다. 이러한 산촌경관의 형성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제 강점기 1930년대 이후 토지조사사업과 일본토지자본의 점유, 일제의 적극적 개간 및 농경지 확장정책, 해방과 동란, 1960년대의 수리시설의 완공, 개답사업 등과 같은 일련의 사회적 단계에 대응하여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사회집단의 입식이 유도되었다. 사회집단의 입식과정에서 사회적 과정은 각기 다른 지역적 전개패턴을 형성했다.

산촌형성과정에서 최초의 분산적 패턴은 동향인 집단 소응집(小凝集)과 같은 소촌적 형태로 이행되었으나, 경지기반의 협소성과 도시적 취락의 흡입요인들은 촌락의 계속적 응집이나 신입지의 확산을 방해하여 촌락의 성장을 저지했다.

한편, 산촌지대에서는 경지와 가옥과의 관계로 볼 때, 일괴경지현상과 경지-가옥연접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정착민 집단은 무전민(無田民)이나 영세농업 경영자였으나, 정착 이후 모두 자작농화(自作農化) 되었다.

(3) 국토지리정보원의 태안반도 촌락형성론

① 국토지리정보원(2003, 144-145; 2008, 296-297)

충청남도 서북부의 태안반도 일대는 험준한 산지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촌경관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일찍이 주목받아 왔다. 이 지역의 촌락형성과정을 심도있게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태안반도 일대의 촌락형성은 구릉지의 임야 및 갯벌의 간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 지역은 큰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여 구릉지가 널리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벼농사를 널리 시행하기 어려웠던 지역이고, 그 결과 벼농사에 유리한 넓은 충적지를 배경으로 한 지역에 비해 촌락의 성립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이 지역에서도 작은 내를 따라 흐르는 물을 이용하기가 쉬워 일찍부터 관계에 의한 벼농사를 생활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골을 중심으로 먼저 촌락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촌락과 마찬가지로 집촌의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서 벗어난 구릉지는 개척이 늦어져서 조선말까지도 임야나 황무지로 남아 있었던 곳이 많았다.

이들은 조선말 경지를 가지지 못한 농민의 주요 개척 대상이 되었고, 그 후 일본의 농업자본 유입, 해방과 전쟁, 1960년대 이후 농지확장정책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간이 이루어지고 촌락이 형성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일차적으로 밭으로 개간되면서 구릉지에서는 밭농사 중심의 산촌 혹은 소촌이 형성되었다. 그 후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상당 부분이 벼농사 지역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과정의 특성과 농업경영의 효율성 면에서는 산촌이 보다 유리한 형태라는 이유 등으로 구릉지의 산촌경관은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바닷가의 갯벌에서는 염전이 중요한 생산활동이었다. 동시에 갯벌은 주요한 농경지간척의 대상이었

다. 염전을 중심으로 집촌 형태의 촌락이 먼저 형성되고, 염전에서 소요되는 뿔나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삼림이 벌채되면서 배후 구릉지의 임야가 밭 중심으로 개간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안반도 일대에는 산록이나 골을 따라서는 집촌, 구릉지에서는 산촌 혹은 소촌, 골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는 배후 구릉지의 임야개척과 바다 쪽 갯벌의 간척이 동시에 형성되어 구릉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촌경관지역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태안반도 일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청지역에서의 집촌과 산촌의 분화는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나 벼농사 중심과 밭농사 중심이라는 틀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태안반도 촌락 중 산촌의 형성과정 및 형성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태안반도 산촌의 형성과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릉지 사면에서 해만 간척지로 확장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해만 간척지에서 구릉지 사면으로 확장하는 유형이다.

유형 1은 '구릉지 사면에서 해만 간척지로 확장하는 산촌'인데, 이 유형의 산촌은 3단계로 형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인근의 배산임수 집촌(답작지)에서 인구증가로 인해서 구릉지로 유입되거나" 또는 "배산임수 집촌에서 출발하지 않고 외지에서 바로 유입되어" 임야개척(삼림개척)에 의한 밭농사 중심의 산촌을 형성한 것으로, 2단계에서는 구릉지에서 관정개발에 의한 지하수 확보, 관개수로(도수로·인공수로)에 의한 저수지 관개수 확보 등에 의한 수리안전담 개발 또는 천수담 형태의 수리불안전담 개발에 의한 논농사를 병행한 것으로, 그리고 3단계에서는 구릉지에 가옥을 존치하거나 해만 간척지로 가옥을 이전하여 해만 간척지에서 논농사·염업·밭농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는데, 논농사는 수리 가능지에서, 염업·밭농사는 수리 불가능지에서 각각 수행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요컨대, 유형 1의 1단계는 구릉지에서 밭농사를 주로 하는 산촌의 형성, 2단계는 구릉지에서 반담(개답)에 의한 논농사의 병행에 따라 원형이 훼손된 이른바 유사산촌(類似散村)의 출현, 3단계는 해만 간척지에서 주거 또는 농업·어업을 병행하는 극단적 유사산촌의 출현으로 각각 정리할 수 있다.

유형 2는 '해만 간척지에서 구릉지 사면으로 확장하는 산촌'인데, 1단계에서는 해만개척에 의해 조성된 해만

간척지에서 집촌을 유지하면서 논농사·염업·밭농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데, 논농사는 수리 가능지에서, 염업·밭농사는 수리 불가능지에서 수행한 것으로, 2단계는 해만 간척지에 기존 집촌을 존치한 상태에서 구릉지 임야개척을 통해 밭농사를 병행하거나 구릉지로 가옥을 이전하고 구릉지 임야개척을 통해 밭농사를 수행하면서 산촌을 형성한 것으로, 그리고 3단계에서는 구릉지에서 관정개발에 의한 지하수 확보, 관개수로(도수로·인공수로)에 의한 저수지 관개수 확보 등에 의한 수리 안전담 개발 또는 천수담 형태의 수리 불안전담 개발에 의한 논농사를 병행하거나 구릉지에 논농사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산촌을 관성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요컨대, 유형 2의 1단계는 해만 간척지에서 전형적 간척지의 형성, 2단계는 구릉지에서 산촌 요소의 부분적 도입 또는 산촌의 출현, 3단계는 구릉지에서 반담(개답)에 의한 논농사의 병행에 따른 유사산촌의 출현으로 각각 정리할 수 있다.

4)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시기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시기에 관해서 최기엽(1985, 104; 1986, 134; 1993, 76), 이문중(1986, 368), 국토지리정보원(2003, 145; 2008, 297) 및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98)는 집촌과 산촌 모두의 형성시기를 제시하고 있고, 이봉준(1977, 236), 정장호(1980, 208), 홍경희(1985, 198) 및 권혁재(1995, 254)는 산촌의 형성시기만을 제시하고 있다(표 11).

우선, 집촌과 산촌의 형성시기 모두를 제시한 경우를 보면, 대체로 두가지 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최기엽(1985, 104; 1986, 134)과 이문중(1986, 368)이 제시하는 것으로 집촌은 '18세기 중엽 이전'에, 그리고 산촌은 '1930~1960년대'에 각각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기엽(1993, 76), 국토지리정보원(2003, 145; 2008, 297) 및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98)가 제시하는 것으로 집촌은 '조선시대부터' 또는 '일찍부터', 그리고 산촌은 '근현대', '조선말' 또는 '근래'에 각각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자와 후자 간의 결정적 차이는 집촌의 형성시기인데, 집촌의 형성시기를 전자는 '18세기 중반 이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조선시대부터'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태안지역을 포함한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

표 11.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시기

연구	촌락형태	집촌	산촌
이봉준(1997, 236)		-	이씨왕조 초기
정장호(1980, 208)		-	근래 인구증가에 따라
홍경희(1985, 198)		-	조선조 초기
최기엽 (1985, 104; 1986, 134)		18세기 중엽 이전	1930년대 중반 일제 토지자본 상륙 이후 1962년 수리시설 완공까지
이문중 (1986, 368; 1988, 142)		18세기 중엽 이전	1930년대 이후 일제의 토지자본 상륙, 8. 15 해방, 6. 25 동란, 1960년대 중반 개척촌 형성 등 사회경제적 과정
최기엽(1993, 76)		조선시대부터	근·현대
권혁재(1995, 254)		-	한국전쟁 이후 집중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 (2003, 145; 2008, 297)		일찍부터	조선 말 일본의 농업자본 유입, 해방과 전쟁, 1960년대 이후 농지확장정책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98)		일찍부터(오랜 역사)	근래

성시기를 집촌과 산촌으로 분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각각 정리된다.;

태안반도의 집촌 형성시기에 관해서는 최기엽(1985, 104; 1986, 134; 1993, 76), 이문중(1986, 368), 국토지리정보원(2003, 145; 2008, 297),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98) 등이 언급하고 있는데, 대체로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최기엽(1985, 104; 1986, 134)과 이문중(1986, 368)이 ‘18세기 중엽 이전’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기엽(1993, 76)과 국토지리정보원(2003, 145; 2008, 297)·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98)가 각각 ‘조선시대부터’와 ‘일찍부터’로 비교적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태안반도의 산촌 형성시기에 관해서는 이봉준(1977, 236), 정장호(1980, 208), 홍경희(1985, 198), 최기엽(1985, 104; 1986, 134; 1993, 76), 이문중(1986, 368), 권혁재(1995, 254), 국토지리정보원(2003, 145; 2008, 297),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98) 등이 언급하고 있는데, 대체로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태안반도의 산촌 형성시기에 관해서 이봉준(1977, 236)과 홍경희(1985, 198)는 ‘조선왕조 초기’로, 국토지리정보원(2003, 145; 2008, 297)은 ‘조선말 이후’로, 최기엽(1985, 104; 1986, 134)과 이문중(1986, 368)은 각각 ‘1930년대 중반 이후’와 ‘1930년대 이후’로, 권혁재(1995, 254)는 ‘한국전쟁 이후’로, 그리고 정장호(1980, 208)·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98)와 최기엽(1993, 76)은 각각 ‘근래’와 ‘근·현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토지리정보원(2003, 145; 2008, 297)과 최기엽

(1985, 104; 1986, 134)·이문중(1986, 368)은 각각 ‘조선말 이후’와 ‘1930년대’로 약간의 시기적 차이가 있지만, 집중적 형성시기 및 요인을 일제의 토지자본·농업자본 유입, 8.15 해방, 6.25 동란, 1960년대의 개척촌 형성, 수리시설 완공, 농지확장정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태안반도의 산촌형성시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기가 제시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봉준(1977, 236)·홍경희(1985, 198)의 ‘조선왕조 초기’와 국토지리정보원(2003, 145; 2008, 297)·최기엽(1985, 104; 1986, 134)·이문중(1986, 368)·권혁재(1995, 254)·정장호(1980, 208)·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98)·최기엽(1993, 76)의 ‘근래’ 및 ‘근현대(조선말 이후, 1930년대 이후)’로 구분된다.

5) 태안반도 촌락형태로서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

최기엽(1985, 103-105; 1986, 138-141)과 이문중(1986, 368-369; 1988, 141-144)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된 태안반도의 경우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가 촌락의 입지 및 형성시기에 따라서 매우 미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최기엽(1985, 103-105; 1986, 138-141)에 의하면, 태안반도의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는 18세기 중반 이전까지는(조선시대부터) “소촌(소규모 촌락, 소촌적 응집, 소규모의 기초지역적 단위; 개척지·골 입지) → 집촌(규모화된 집촌; 개척지·골 입지)의 진화양상”을 드러내고 있고⁹⁾, 1930~1960년대 간에는 “집촌(규모화

된 집촌: 골 입지) → 소촌형태 산촌(소용집같은 소촌적 형태 또는 '산촌에서 진전된 소촌; 구릉지 입지)의 진화양상을 드러내고 있어, 결국 태안반도의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는 "소촌(골 입지) → 집촌(골 입지) → 소촌형태 산촌(구릉지 입지)의 진화과정"으로 정리될 수 있다(그림 2).

또한, 이문중(1986, 368-369; 1988, 141-144)에 의하면, 태안반도의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는 18세기 중반 이전에 산록 또는 개석곡지(골)에서 '집촌'의 형성을 드러내고, 1930~1960년대 간에는 구릉지에서 '산촌 또는 소촌'의 형성을 드러내서, 결국 태안반도의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는 "집촌(산록 또는 개석곡지 [골] 입지) → '산촌 또는 소촌'(구릉지·탁상침식면·사박면 입지)의 진화과정"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문중(1988, 141-144; 1989, 294-295)의 연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촌락 입지에 따른 촌락형태에 대하여 "해만(바다)과 골 사이에는 골보다는 산촌적이고, 구릉지보다는 집촌적인 촌락형태"가 나타난다(그림 3).

2. 태안반도 촌락형태 변화의 특성

1)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최근 변화양상

태안반도의 집촌 및 산촌이 최근 여러 측면에서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촌락의 입지 및 농업유형의 두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촌의 경우 입지는 '배산임수'(背山臨水, 골·개석곡구·개석곡지)에서 '배산' 요건만 갖춘 '유사배산임수'(類似背山臨水)로 확장되는 변화를 겪고 있고, 농업유형은 '배산임수에서의 논농사 위주'에서 '유사배산임수 내지 해만 간척지에서의 논농사로의 확장'은 물론 '배산에서의 밭농사 병행'으로 변화되고 있다. 산촌의 경우 입지는 '구릉지 사면'에서 '골과 해만 사이' 또는 '해만 간척지'로 확장되고 있고, 농업유형은 '구릉지 사면에서의 밭농사 위주'에서 '구릉지 사면에서의 논농사 병행 또는 '해만 간척지에서의 논농사·염업·밭농사의 병행'으로 확장되고 있다.

촌락 형태	
촌락 입지	산록 또는 골(개석곡지) 구릉지 (탁상침식면, 평단지)
촌락 형성시기	18세기 중반 이전(조선시대부터) 1930~1960년대

그림 2. 태안반도의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

출처 : 최기엽(1985, 103-105; 1986, 138-141).

주 : 골에 입지한 '소촌'은 '소규모 촌락, 소촌적 응집, 기초지역적 단위'를, '집촌'은 '규모화된 집촌'을 각각 의미한다.

촌락 형태	
촌락 입지	산록 또는 골(개석곡지) 구릉지(탁상침식면, 사박면)
촌락 형성시기	18세기 중엽 이전 1930~1960년대

그림 3. 태안반도의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

출처 : 이문중(1986, 368-369; 1988, 141-144).

주 : 이문중(1988, 144; 1989, 294)에 의하면, '골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골보다 산촌, 구릉지보다 집촌적인 촌락패턴'이 입지해 있음.

(1) 태안반도 집촌의 입지 및 농업유형의 최근 변화

태안반도 일반농촌의 대부분이 발생학적으로 전형적인 전통적 산촌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산촌지대의 일부 일반농촌이 배산임수의 입지에서 전통적 집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안반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일반농촌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집촌의 특성은 '배산임수입지', '동족지연적 촌락사회구조', '주거공간·방어공간·배양공간·자원공간·교통공간으로 구성된 촌락구조'(이문중, 1982), '풍수지리관에 입각한 기승전결적 촌락구조(起承轉結的 村落構造)'(임덕순, 1990)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런데, 태안반도 전통적 집촌 중 일부는 전통적 집촌의 구성요소 중에서 일부만 적용하거나 일부를 왜곡한 이른바 '유사집촌(類似集村)'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선, 태안반도의 유사집촌에는 입지와 관련하여 배산임수입지 중 배산입지만 나타나거나 주거공간·방어공간·배양공간·자원공간·교통공간으로 구성된 촌락구조 및 풍수지리관에 입각한 기승전결적 촌락구조 각각의 일부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태안반도 유사집촌에는 농업유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통적 집촌의 구성요소 중에서 농농사와 같은 일부 요소만 나타나고, 그나마도 미약하거나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주요 이유로는 이 지역에 산촌이 선행적으로 보편화·전형화되어 있어서 농농사와 같은 집촌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출현하더라도 소멸되거나 미약화된다는 점, 이 지역의 지질적 및 지형적 특성에 기인한 하천의 미약한 발달로 농농사 중심의 집촌의 형성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점, 집촌 형성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논이 촌락 전면(前面)의 무하천 곡저지나 저평지에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거나 해만간척지에 조성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해만개척지에 논이 형성되어 전작농업, 어업 및 염업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던 전통적 산촌이 미작농업을 병행하는 유사산촌으로 변하고, 유사산촌의 일부가 농농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유사산촌이 유사집촌으로 전환하거나 인근에 유사집촌이 출현하고 있다.

부연하면, 태안반도 일반농촌에 발달해 있는 유사집촌은 취락 전면에 하천에 의한 임수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하천 범람원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락 전면에서 농농사를 수행하지 않고 다소 원격의 간척지에서 해만개척에 의한 농농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래, 간척지에서의 취락 입지는 "간척지와와의 거리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척지 내에서 계획적 집촌을 형성하거나" 또는 "간척지에서 거리상으로 다소 원격화되어 거리마찰이 증대되더라도 간척지 주변에서 계획적 집촌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태안반도 유사집촌의 경우 간척지에서 다소 원격화된 구릉성 산지의 골에서 '유사 골형 배산임수 입지'를 취하는 것이 특이하다.

태안반도 일반농촌에 발달해 있는 유사집촌은 비록 다소 원격해 있는 간척지에서 일지라도 농농사를 위주로 하는 괴촌상 집촌임에도 불구하고 '골형 배산임수 입지'가 아닌, 즉 '배산임수'에서 '임수가 무시된 '골형 배산입지'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골형 배산 입지'는 일반적으로 배후산지(背後山地)와 전면하천(前面河川)이라는 자연적 조건을 온전히 갖추고 농농사를 위주로 하는 지역에서 취하던 '골형 배산임수 입지'를 자연적 기반이 다른, 즉 하천에 의한 범람원 축적지가 거의 발달해 있지 않고 구릉성 산지가 대부분인 태안반도에서 집촌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관성(歷史的·文化的·社會的 貫性, historical-cultural-social inertia)이 전이적(轉移的)으로 실행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안반도 일반농촌에서의 '골형 배산임수 입지'는 집촌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관성 요인 중 특히 동족지연적 요인이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은 외견상 괴촌의 규모와 밀집도를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다.

또한, 태안반도 일반농촌의 유사집촌은 다소 원격화된 간척지에서의 비교적 대규모의 농농사 이외에 배후의 구릉성 산지에서 임야개척을 통한 발농사를 비교적 대규모로 행하고 있는데, 이는 발농사 위주 산촌에서의 전형적 농업관행의 영향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태안반도 일반농촌의 유사집촌에서는 집촌과 산촌의 농업관행이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태안반도 일반농촌에서 '농촌취락의 공간구조모형'(이문중, 1982)에 의거한 주거공간·방어공간·배양공간·자원공간·교통공간은 모델과 유사하게 나타날 뿐 온전하게 일치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하천의 부재와 그에 따른 농농사의 부재가 그 주요원인이다. 또한, 태안반도 일반농촌에서 '풍수관이 깃든 촌락에 있어서의 기승전결적 촌락구조 모델'(임덕순, 1990)에 의거한 기승전결형 촌락구조 역시 모델과 유사하게 나타날 뿐 온전하게 일치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하천의

부재와 그에 따른 논농사의 부재가 그 주요원인이다.

요컨대, 배산임수의 경사변환선상 골형 입지에서 집촌을 형성하고, 주로 벼농사를 하는 촌락을 본래의 '전통적 집촌'이라 한다면, 최근 들어 태안반도 일대에는 전통적 산촌 지대에 전통적 산촌만큼 보편적은 아니지만, 전통적 집촌의 '입지 및 농업유형의 원형' 중 일부 요소만 적용되거나 일부 요소가 변형된 '유사집촌'이 출현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태안반도의 유사집촌은 '전통적 집촌의 전형적 입지인 배산임수 중 일부 요소' 및 '전통적 집촌의 전형적 농업유형인 논농사 중 일부 요소'를 적용하거나 변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태안반도에서 유사집촌의 발생은 자연적 및 인문적 환경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면서 전통적 산촌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태안반도 산촌의 입지 및 농업유형의 최근 변화

본래, 태안반도에 기존부터 존재하던 산촌, 즉 전통적 산촌의 입지 및 농업유형은 기본적으로 '구릉지 사면에서의 밭농사'이다. 이는 지표수, 즉 표면유수가 부족한 구릉지 사면에서 가능한 농업유형은 기본적·정상적으로 밭농사 뿐이고, 밭농사에 가장 적합한 촌락형태는 산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태안반도 전통적 산촌의 '입지 및 농업유형의 원형'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전통적 산촌의 입지가 기존의 '구릉지 사면'에서 '골과 해만 사이' 또는 '해만 간척지'로 확장되고 있다. 특

히, 골과 해만 사이 또는 해만 간척지로 이전한 촌락은 벼농사를 병행하면서도 집촌으로 변환되지 않고 있다. 또한, 태안반도의 산촌에서는 입지상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산촌에서 반답(개답) 형식으로 밭농사 이외에 논농사도 병행하는 '산촌의 집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표 12).

이와 같이 태안반도의 전통적 산촌 중 일부는 전통적 산촌의 구성요소 중에서 일부만 적용하거나 일부를 변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전통적 산촌을 이른바 '유사산촌(類似散村)'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밭농사 위주의 산촌' 형성 이후 반답과정을 거쳐서 논농사를 병행하는 경우 논농사는 산촌의 본질이 아니므로 '밭농사 이외에 논농사를 병행하는 산촌'은 전형적 유사산촌으로 간주할 수 있다.⁶⁾

태안반도의 유사산촌은 구릉지 사면에서 밭농사·논농사의 병행 뿐만 아니라 골과 해만 사이 또는 해만 간척지에서 논농사·엽업·밭농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해만 간척지 중 수리가능 부분에서는 논농사를 주로 수행하고, 수리불가능 부분에서는 엽업·밭농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왜 태안반도의 유사산촌은 구릉지 사면, 골과 해만 사이 및 해만 간척지에서 논농사를 겸하고, 해만 간척지에서 엽업·밭농사를 겸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최근은 물론 현재도 배산임수의 집촌에서 논농사를 주로 하던 농민들이 구릉지로 이주해 와서도 역사적·문화적 관성으로 논농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 12. 태안반도 산촌에서의 반답 양상

연구	반답 양상
최기엽 (1985, 104; 1986, 135)	삼립지는 최초엔 전(田)으로, 다시 반답과정(反畝過程)을 경과하여 규칙적인 구획으로 정리된 수전(水田)으로 바뀌었다.
최기엽 (1993, 76)	원래 침식면상의 평탄지는 수리가 좋지 않아 임야지로 잔존해 왔었는데, 이 잔존 평탄지가 근·현대에 이르러 대농업자본의 개입이나 저수지와 도수로의 축조에 의해 수리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경지화되고, 다음에는 다시 밭이 논으로 반답되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밟는 가운데 산촌이 형성되고,
권혁재 (1995, 254)	구릉지개발 또는 야산개발은 한국전쟁 이후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근래에는 구릉지 골짜기에서 밭이 논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러한 논에서는 관정(管井)으로 끌어올리는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쓰인다.
국토지리 정보원 (2003, 145)	구릉지는 조선말부터 일제시기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개간이 이루어지고 일차적으로 밭으로 개간되면서 구릉지에서는 밭농사 중심의 산촌 혹은 소촌이 형성되었다. 그 후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상당 부분이 벼농사 지역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 편찬위원회 (2006, 97)	1960년대에 해미천 상류의 산수저수지로부터 도수로에 의해 농업용수가 공급되면서부터 밭이 논으로 많이 개답(開畝)되었다.

들깨, 쌀이 주곡·주식작물(主穀·主食作物)이고, 소금은 필수식품이어서 쌀과 소금은 모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준화폐기능을 가진 환금성 상품(換金性 商品)이었다.

결국, 태안반도의 유사산촌은 일부의 경우 농농사, 밭농사 및 염업을 모두 수행하여 생존을 위한 필수식품인 쌀, 야채·과일 및 소금을 모두 확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태안반도 유사산촌의 핵심은 '구릉지 사면에서의 농농사'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구릉지 사면에 눈을 확보하려는 반답(개답)의 양상은 어떠했을까? 이에 관한 주요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2).

태안반도에서 반답(개답) 양상에 관한 주요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구릉지에서 관정 개발을 통한 지하수 확보 또는 관개수로(도수로·인공수로) 인입을 통한 관개수 확보에 의해서 수리안전답을 개발하는 형식"과 "지하수 개발이나 관개수 인입없이 수리불안전답, 즉 천수답을 개발하는 형식"의 두가지로 압축된다.

요컨대, 구릉지 사면 입지에서 산촌을 형성하고, 주로 밭농사를 하는 촌락을 본래의 '전통적 산촌'이라 한다면, 최근 들어 태안반도에는 전통적 산촌의 '입지 및 농업유형의 원형' 중 일부 요소만 적용되거나 일부 요소가 변형된 '유사산촌'이 출현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태안반도의 유사산촌은 구릉지 사면에서 밭농사 및 농농사의 병행 뿐만 아니라 골과 해만 사이 또는 해만 간척지에서 농농사·염업·밭농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안반도에서 유사산촌의 발생은 태안반도의 자연적 및 인문적 환경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면서, 전통적 집촌과 관련되어 있고,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관성의 작용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태안반도 산촌의 제한적 집촌화 경향 및 형태적 관성

산촌은 간혹 '집촌화'(集村化)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최운석외, 2000, 273). 태안반도에서 이러한 '산촌의 집촌화 경향'은 대체로 '촌락의 농업유형' 및 '촌락형태'의 두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태안반도 산촌의 집촌화 경향 중 촌락의 농업유형 측면은 밭에서 논으로 전환되는 반답(反畓, 개답(開畓))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반답은 관정(管井) 개발로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수리안전답(水利安全畓)도 있었지만(권혁재, 1995, 254), 그렇지 않은 무관정(無管井)의 수리불안전답도 있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최기

업(1985, 104; 1986, 135; 1993, 76), 권혁재(1995, 254), 국토지리정보원(2003, 145),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97) 등⁷⁾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표 12).

태안반도 산촌의 집촌화 경향은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농사 및 밭농사와 같은 '촌락의 농업유형'과 관련된 '반답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촌락의 가옥 밀집도(집합도)를 기준으로 한 '촌락형태'와 관련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촌락형태 관련 집촌화 경향은 기존의 '고립농가 형태 산촌'이 '소촌 형태 산촌'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최기업(1973, 76)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잔존 평탄지가 근·현대에 이르러 대농업자본의 개입이나 저수지와 도수로의 축조에 의해 수리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경지화되고, 다음에는 다시 밭이 논으로 반답되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밟는 가운데 '산촌'이 형성되고, 다시 '소촌'으로 진전되었으며, ……."

최기업(1993, 76)의 위와 같은 기술에서 '산촌'은 '고립농가 형태 산촌'을 의미하고, '소촌'은 '소촌 형태 산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촌을 집촌과 산촌의 중간 형태 내지 매개체로 간주하면, 소촌은 '소촌 형태 산촌'인 동시에 '소촌 형태 집촌'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태안반도에서 산촌이 소촌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은 "'고립농가 형태 산촌'이 '소촌 형태 산촌 내지 소촌 형태 집촌'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산촌의 집촌화 경향의 일단(一端)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위와 같은 소촌의 '산촌과 집촌 간의 중간적 위상(位相)'과 관련하여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를 부연하면, 일반적으로 "산촌은 집촌의 이차적 형태"라는 주장의 의미는 "집촌이 분화하여 '고립농가 형태 산촌'이 되고, '고립농가 형태 산촌'이 진화하여 '소촌 형태 산촌'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촌은 촌락의 진화과정에서 가장 단순한 집촌 단위"라는 주장의 의미는 "가장 단순한 집촌단위로서의 소촌은 '소촌 형태 집촌'"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두 주장의 의미를 종합하면, 소촌은 '소촌 형태 산촌'과 '소촌 형태 집촌'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촌은 '고립농가 형태 산촌'과 '규화된 괴촌 형태 집촌'의 중간 형태로서 분류상 '소촌 형태 산촌'과 '소촌 형태 집촌'의 위상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소

촌은 결국 '산촌의 범주'(고립농가와 소촌)에도 속하고 동시에 '집촌의 범주'(소촌과 괴촌)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촌락의 진화과정은 '집촌 → 고립농가 형태 산촌 → 소촌(소촌 형태 산촌, 소촌 형태 집촌) → 집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촌락형태의 진화과정에서 태안반도 산촌은 '집촌'으로부터 '고립농가 형태 산촌'에 도달해 있거나 '집촌 → 고립농가 형태 산촌'의 과정을 거쳐 '소촌 형태 산촌(소촌 형태 집촌)'에 도달해 있고, 아직 '집촌'으로의 환원(還元)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태안반도 산촌형태가 '소촌 형태 산촌(소촌 형태 집촌)'에서 '집촌'으로 진화하지 못하는 것은 구릉지에서는 '집촌 입지' 및 '집촌의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농농사 수행'을 위한 자연적 조건의 부적합으로 '소촌 형태 산촌(소촌 형태 집촌)'이 '규모화된 괴촌 형태 집촌'으로 전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안반도 산촌의 경우 촌락형태 측면에서 '소촌 형태 산촌(소촌 형태 집촌)'이 '규모화된 괴촌 형태 집촌'으로 전환되는 수준의 '산촌의 집촌화 경향'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결국 현재의 '고립농가 형태 산촌'이나 '소촌 형태 산촌(소촌 형태 집촌)' 수준의 산촌형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태안반도 산촌에서 한 때의 인위적 상황이었지만,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화사업(電化事業), 협동작업 등과 간척침투 방지 조치과정에서 집촌화가 시도되기도 했는데(이봉준, 1977, 236), 이러한 촌락형태 측면의 집촌화는 산재(散在)한 농가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결국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태안반도 산촌의 집촌화 경향'은 한편으로는 '촌락의 농업유형'과 관련된 '반답양상'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촌락형태와 관련된' '소촌 형태 산촌(소촌 형태 집촌)'의 출현으로 집약할 수 있으나, 반답에 따른 농농사의 병행이 '소촌 형태 산촌(소촌 형태 집촌)'의 '규모화된 괴촌 형태 집촌'으로의 변환을 유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태안반도 산촌의 집촌화 경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즉, 태안반도의 산촌에서 발농사 이외에 집촌 고유의 농농사를 병행하는 것은, 특히 수리불안전답(전수답)의 형태로 농농사를 수행하는 것은 '산촌의 집촌화 경향'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인데, 동시에 산촌에서 발농사 이외

에 집촌적 농농사를 병행하면서도 '고립농가 형태 산촌'이나 '소촌 형태 산촌(소촌 형태 집촌)'을 유지하고 '규모화된 괴촌 형태 집촌'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산촌의 집촌화 경향의 제한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태안반도에서 자연발생적 또는 인위적 측면에서 '산촌의 집촌화 경향'이 제한적으로라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촌경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산촌의 집촌화 경향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산촌경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집촌 입지' 및 '집촌의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농농사 수행'을 위한 자연적 조건이 절대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문화·사회적 차원에서 '산촌의 형태적 관성'(散村의 形態的 慣性)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태안반도 산촌에서 '산촌의 형태적 관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국토지리정보원(2003, 145)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태안반도 일대에서 관개에 의한 벼농사의 혜택에서 벗어난 구릉지는 조선 말부터 일제시기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개간이 이루어지고 촌락이 형성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일차적으로 밭으로 개간되면서 구릉지에서는 밭농사 중심의 산촌 혹은 소촌이 형성되었다. 그 후,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상당 부분이 벼농사 지역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과정의 특성과 농업경영의 효율면에서는 산촌이 유리한 형태라는 이유 등으로 구릉지의 산촌경관은 계속 유지되었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촌락형태로서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에서 산촌은 집촌에서 분화되어 나왔고, 산촌은 다시 집촌화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태안반도의 산촌은 집촌화 경향을 제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태안반도 산촌의 제한적 집촌화 경향은 농업유형 측면의 '반답'과 촌락형태 측면의 '소촌'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의 요약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은 태안반도 촌락형태의 분류,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특성,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과정 및 형성요인,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시기, 태안반도 촌락형태로

서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 등의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안반도 촌락형태의 분류에 있어서 집촌의 경우 별칭으로 표기하거나 세부형태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산촌의 경우는 단순히 산촌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세부형태로 분류하거나 집촌과 산촌의 중간형태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산촌의 세부형태로는 '산촌과 소촌' 또는 '고립 혹은 소촌적인 촌락 패턴'을 제시하고, 집촌과 산촌의 중간형태로 '골보다는 산촌, 구릉지보다는 집촌적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산촌은 일반적으로 '고립농가 또는 소촌'으로 구성되므로 태안반도 산촌형태의 세부형태로 '산촌 또는 소촌'으로 표기하기보다는 '고립농가 또는 소촌'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특성에 있어서 집촌의 경우 입지는 산록·개석곡지·골로, 농업유형은 답작으로 각각 나타나고, 산촌의 경우 입지는 구릉지사면저산성산지·완사면·탁상침식면·삭박면으로, 농업유형은 전작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태안반도 산촌 입지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상태인 고원·구릉·산악과 달리 평탄한 완사면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과정 및 형성요인은 '집촌과 산촌의 분화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석곡지에서 벼농사가 가능한 경우 집촌이 형성되었고, 구릉지에서 밭농사만 가능한 경우 산촌이 형성되었다. 즉, 태안반도에서 집촌과 산촌의 분화를 결정한 핵심요인은 '벼농사의 시행 가능성 여부'이다. 둘째,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를 보면, 집촌이 통일신라~18세기 중반에 걸쳐 우선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산촌이 집촌과 관련하여 1930-1960년대에 발생했다. 셋째, 집촌과 산촌, 특히 집촌의 형성과정에서 동족지연성이 큰 역할을 했다. 넷째, 산촌의 형성과정에서 일괴경지현상과 경지-가옥연접현상이 큰 영향을 끼쳤다.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시기에 있어서 집촌 형성시기는 '18세기 중엽 이전', '조선시대부터', '일찍부터' 등으로 제시되고 있고, 산촌 형성시기는 '조선왕조 초기', '근래' 및 '근현대(조선말 이후, 1930년대 이후)' 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집촌 및 형성시기로 '18세기 중엽 이전'과 '근현대(조선말 이후, 1930년대 이후)'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태안반도 촌락형태로서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촌(골 입지) → 집촌(골 입지) → 소촌형태 산촌(구릉지 입지)의 진화과정" 및 "집촌(산록 또는 개석곡지 [골] 입지) → '산촌 또는 소촌(구릉지·탁상침식면·삭박면 입지)의 진화과정'으로 대별된다. 이외에, '해만(바다)과 골 사이'에는 "골보다는 산촌적이고, 구릉지보다는 집촌적인 촌락형태"가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다.

태안반도 촌락형태 변화의 특성은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최근 변화양상, 태안반도 산촌의 제한적 집촌화 경향 및 형태적 관성 등의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안반도의 집촌 및 산촌이 최근 여러 측면에서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촌락의 입지 및 농업유형의 두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촌의 경우 입지는 '배산임수(골·개석곡구·개석곡지)에서 '배산' 요건만 갖춘 '유사배산임수로 확장되는 변화를 겪고 있고, 농업유형은 '배산임수에서의 논농사 위주'에서 '유사배산임수 내지 해만 간척지에서의 논농사로의 확장'은 물론 '배산에서의 밭농사 병행'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배산임수의 경사변환선상 골형 입지에서 집촌을 형성하고, 주로 벼농사를 하는 촌락을 본래의 '전통적 집촌'이라 한다면, 최근 들어 태안반도 일대에는 전통적 집촌의 '입지 및 농업유형의 원형' 중 일부 요소만 적용되거나 일부 요소가 왜곡된 '유사집촌'이 출현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산촌의 경우 입지는 '구릉지 사면'에서 '골과 해만 사이' 또는 '해만 간척지'로 확장되고, 농업유형은 '구릉지 사면에서의 밭농사 위주'에서 '구릉지 사면에서의 논농사 병행' 또는 '해만 간척지에서의 논농사·염업·밭농사의 병행'으로 확장되는 변화를 겪고 있는데, 구릉지 사면 입지에서 산촌을 형성하고, 주로 밭농사를 하는 촌락을 본래의 '전통적 산촌'이라 한다면, 최근 들어 태안반도에는 전통적 산촌의 '입지 및 농업유형의 원형' 중 일부 요소만 적용되거나 일부 요소가 왜곡된 '유사산촌'이 출현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태안반도 산촌은 상호호순적인 집촌화 경향과 형태적 관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태안반도 산촌의 집촌화 경향'은 한편으로는 '촌락의 농업유형'과 관련된 '반답양상'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촌락형태'와 관련된 '소촌 형태 산촌(소촌 형태 집촌)'의 출현으로 집약할 수 있으나, 반답에 따른 논농사의 병행이 '소촌 형태 산촌

(소촌 형태 집촌)의 '규모화된 괴촌 형태 집촌'으로의 변환을 유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태안반도 산촌의 집촌화 경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산촌의 집촌화 경향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산촌경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집촌 입지 및 '집촌의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농농사 수행'을 위한 자연적 조건이 절대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문화·사회적 차원에서 '산촌의 형태적 관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촌은 서남부의 평야지대에서 형성되고, 산촌은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 등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에서 형성된다는 기존 이론과 달리 태안반도 일대에서는 전형적 평야지대가 아닌데도 집촌이 발달해 있고, 고원, 산지 등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가 아닌데도 산촌이 발달해 있다. 즉, 태안반도의 경우 대체로 저산성 구릉지 사이의 곡지에 집촌이 발달해 있고, 저산성 구릉지의 완사면에 산촌이 발달해 있어, 결국 태안반도 일대에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집촌과 산촌이 공존하고 있다. 즉, 태안반도에는 우리나라 서남부 평야지대의 일반적 집촌과 다른 입지조건하의 '전통적 집촌'과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 등 산간지의 화전농업지대의 일반적 산촌과는 다른 입지조건하의 '전통적 산촌'이 고유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여러 연구자들이 태안반도에 고유하게 발달되어 있는 전통적 집촌 및 전통적 산촌의 특성에 주목하여 '태안반도 전통적 집촌 및 전통적 산촌의 형성 과정 및 요인 측면의 특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이봉준(1977), 이문중(1983; 1986; 1988; 1989; 1991), 최기업(1985; 1986; 1993)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집촌 및 산촌으로 대별되는 촌락형태의 형성'에 관한 연구에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필자는 최근 답사 및 문헌 고찰을 통하여 "태안반도에 우리나라 전통적 집촌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배산임수 입지에서의 농농사의 일부를 적용 및 왜곡한' '유사집촌'과 "태안반도 전통적 산촌의 핵심적 구성

요소인 '구릉지 사면에서의 밭농사의 일부를 적용 및 왜곡한' '유사산촌'이 존재함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태안반도의 촌락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에 대해 그간에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개관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파악 결과에 현지답사 결과를 더하여 두 결과에 더하여 '태안반도 촌락형태 변화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명기하면,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지답사 이외에 '촌락형태 형성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개관하였고, 이어서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에 대하여 개관하였고, 끝으로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에 대해 개관하였다. 이러한 개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촌락형태의 형성에 관한 일반적 이론

촌락형태는 촌락의 구성단위인 가옥 및 대지의 결합도, 즉 밀도에 의해 집촌과 산촌으로 구분되는데, 집촌은 특정 장소에 가옥이 밀집하여 집단을 이루는 촌락이고, 산촌은 개개의 가옥이 분산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촌락이다. 가옥의 집산은 지형조건, 물의 제약, 방어의 필요성, 혈연적 관계, 토지이용 방법, 토지소유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가옥의 소밀정도는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성립의 역사가 장구한 곳에 집촌이, 성립의 역사가 연천한 곳에 산촌이 각각 형성된다.

촌락형태는 집촌의 경우 '소규모 집촌 또는 소촌적 응집 수준의 소촌'과 '규모화된 촌락으로서의 집촌'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규모화된 집촌을 다시 형태, 기능 등에 따라 괴촌, 열촌, 노촌, 가촌, 환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촌의 경우 '고립농가와 '소촌'으로 세분할 수 있다. 집촌과 산촌의 중간형태 내지 과도형태의 경우 분산적 응집촌, 성운상 촌락, 응집적 산촌, 산재한 선형 패턴, 분산 혹은 집합된 소촌, 소촌(장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촌락형성요인은 집촌의 경우 인간의 사회성, 미작농업에서의 공동작업, 외적방어 등이 주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고, 산촌의 경우 신개척적, 양호한 치안상태, 용수의 보편적 분포, 농가의 소유경지내 입지, 계획적 촌락 계획 등이 주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는 '집촌의 발생적 우

선성, '산촌의 발생적 우선성', '산촌 내에서 고립농가와 소촌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는 대체로 '집촌 → 고립농가 → 소촌 → 집촌', '집촌 → 소촌 → 고립농가 → 집촌' 및 '집촌 → 소촌 → 고립농가 → 소촌 → 집촌'의 세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분포는 서남부 평야지대에서는 집촌이, 개마고원이나 태백산지 일대에서는 산촌이 일반적인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인간의 거주 역사가 오래되고 평탄한 구릉지가 대부분인 태안반도 지역에 산촌이 널리 분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촌락의 형태별 형성요인은 집촌과 산촌의 입지 및 농업유형에서 결정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촌락의 입지에 있어서 집촌은 배산임수의 골에, 산촌은 고원·구릉·산악 등의 산지에 각각 입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촌락의 농업유형에 있어서 집촌은 논농사를, 산촌은 밭농사를 각각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각각 주요 형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집촌의 경우 산촌과 달리 동족부락이 주요 형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의 특성은 태안반도 촌락형태의 분류,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특성,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과정 및 형성요인,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시기, 태안반도 촌락형태로서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 등의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안반도 촌락형태의 분류에 있어서 집촌의 경우 별칭으로 표기하거나 세부형태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산촌의 경우는 단순히 산촌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세부형태로 분류하거나 집촌과 산촌의 중간형태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산촌의 세부형태로는 '산촌과 소촌' 또는 '고립 혹은 소촌적인 촌락 패턴'을 제시하고, 집촌과 산촌의 중간형태로 '골보다는 산촌, 구릉지보다는 집촌적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산촌은 일반적으로 '고립농가 또는 소촌'으로 구성되므로 태안반도 산촌형태의 세부형태로 '산촌 또는 소촌'으로 표기하기보다는 '고립농가 또는 소촌'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특성에 있어서 집촌의 경우 입지는 산록·개석곡지·골로, 농업유형은 답작으로 각각 나타나고, 산촌의 경우 입지는 구릉지사면저산성산지·완사면·탁상침식면·삭박면으로, 농업유형은 전작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태안반도 산촌 입지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상태인 고원·구릉·산악과 달리 평탄한 완사면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과정 및 형성요인은 '집촌과 산촌의 분화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석곡지에서 벼농사가 가능한 경우 집촌이 형성되었고, 구릉지에서 밭농사만 가능한 경우 산촌이 형성되었다. 즉, 태안반도에서 집촌과 산촌의 분화를 결정할 핵심요인은 '벼농사의 시행 가능성 여부'이다. 둘째,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를 보면, 집촌이 통일신라~18세기 중반에 걸쳐 우선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산촌이 집촌과 관련하여 1930-1960년대에 발생했다. 셋째, 집촌과 산촌, 특히 집촌의 형성과정에서 동족지연성이 큰 역할을 했다. 넷째, 산촌의 형성과정에서 일괴경지현상과 경지·가옥연접현상이 큰 영향을 끼쳤다.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형성시기에 있어서 집촌 형성시기는 '18세기 중엽 이전', '조선시대부터', '일찍부터' 등으로 제시되고 있고, 산촌 형성시기는 '조선왕조 초기', '근래' 및 '근현대(조선말 이후, 1930년대 이후) 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집촌 및 형성시기로 '18세기 중엽 이전'과 '근현대(조선말 이후, 1930년대 이후)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태안반도 촌락형태로서 '집촌과 산촌의 발생적 인과관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촌(골 입지)→ 집촌(골 입지)→ 소촌형태 산촌(구릉지 입지)의 진화과정" 및 "집촌(산록 또는 개석곡지 [골] 입지)→ '산촌 또는 소촌(구릉지·탁상침식면·삭박면 입지)의 진화과정'으로 대별된다. 이외에, '해만(바다)과 골 사이'에는 "골보다는 산촌적이고, 구릉지보다는 집촌적인 촌락 형태"가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다.

태안반도 촌락형태 변화의 특성은 태안반도 촌락의 형태별 입지 및 농업유형의 최근 변화양상, 태안반도 산촌의 제한적 집촌화 경향 및 형태적 관성 등의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안반도의 집촌 및 산촌이 최근 여러 측면에서 변화

되고 있는데, 특히 촌락의 입지 및 농업유형의 두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촌의 경우 입지는 '배산입수'(골·개석곡구·개석곡지)에서 '배산' 요건만 갖춘 '유사배산입수'로 확장되는 변화를 겪고 있고, 농업유형은 '배산입수에서의 논농사 위주'에서 '유사배산입수 내지 해만 간척지에서의 논농사로의 확장'은 물론 '배산에서의 밭농사 병행'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배산입수의 경사변환선상 골형 입지에서 집촌을 형성하고, 주로 벼농사를 하는 촌락을 본래의 '전통적 집촌'이라 한다면, 최근 들어 태안반도 일대에는 전통적 집촌의 '입지 및 농업유형의 원형' 중 일부 요소만 적용되거나 일부 요소가 변형된 '유사집촌'이 출현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산촌의 경우 입지는 '구릉지 사면'에서 '골과 해만 사이' 또는 '해만 간척지'로 확장되고, 농업유형은 '구릉지 사면에서의 밭농사 위주'에서 '구릉지 사면에서의 논농사 병행' 또는 '해만 간척지에서의 논농사·염업·밭농사의 병행'으로 확장되는 변화를 겪고 있는데, 구릉지 사면 입지에서 산촌을 형성하고, 주로 밭농사를 하는 촌락을 본래의 '전통적 산촌'이라 한다면, 최근 들어 태안반도에는 전통적 산촌의 '입지 및 농업유형의 원형' 중 일부 요소만 적용되거나 일부 요소가 변형된 '유사산촌'이 출현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태안반도 산촌은 상호모순적인 집촌화 경향과 형태적 관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태안반도 산촌의 집촌화 경향'은 한편으로는 '촌락의 농업유형'과 관련된 '반답양상'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촌락형태'와 관련된 '소촌 형태 산촌(소촌 형태 집촌)'의 출현으로 집약할 수 있으나, 반답에 따른 논농사의 병행이 '소촌 형태 산촌(소촌 형태 집촌)'의 '규모화된 괴촌 형태 집촌'으로의 변환을 유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태안반도 산촌의 집촌화 경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산촌의 집촌화 경향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산촌경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집촌 입지 및 집촌의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논농사 수행'을 위한 자연적 조건이 절대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문화·사회적 차원에서 '산촌의 형태적 관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제언

1) 태안반도 집촌 및 산촌의 연계 연구와 태안반도 촌락형태 연구의 지역적 범위 확장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주요 연구들의 경우처럼 집촌과 산촌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태안반도 산촌의 형성 및 변화'는 '집촌의 형성 및 변화'와 일정 부분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주요 연구들의 경우처럼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은 우리나라 및 충청남도 차원에서 그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태안반도 유사집촌과 유사산촌에 대한 연구의 체계화

최근 들어 태안반도에 출현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유사집촌'과 '유사산촌'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태안반도의 유사집촌은 가옥 입지 및 농업유형이 전통적 집촌의 '배산입수 골형입지에서의 논농사'라는 전형성에서 이탈하여 '배산 골형 가옥 입지 및 간척지 논농사'로 변환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장구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전통적 집촌의 가옥 입지 및 농업유형의 원형을 변형해 가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태안반도의 유사산촌은 '산촌의 집촌화 경향'에 의하여 출현하고 있지만, 산촌의 집촌화 경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산촌의 제한적 집촌화 경향'은 역사·문화·사회적 차원에서 '산촌의 형태적 관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사집촌과 유사산촌에 관한 연구는 현지답사, 지도화 분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태안반도의 각종 주거 및 산업 관련 개발사업에 의해 매우 급속하게 대량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유사집촌과 유사산촌으로 집약되는 '태안반도 촌락형태 변화의 특성' 연구는 가급적 서둘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태안반도의 산촌은 한국문화의 원류의 일단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 연구는 물론 유지 및 보존에도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註

- 1) 본 논문에서 '산촌'은 모두 '散村'을 의미하며, '산지촌(山地村)의 약어(略語)로서의 '산촌(山村)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산지촌은 그대로 '산지촌'이라 표기한다.
- 2) 권혁재(2003, 458-463)는 '촌락'을 가옥의 밀집도에 따라 집촌과 산촌으로 분류하면서(458) "이들 용어는 주민들이 흩어져서 사느냐 한 곳에 모여서 사느냐를 가리킬 뿐 촌락, 즉 village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고(462), "주민들이 모여서 살면 촌락이 형성되지만, 흩어져서 살면 촌락이 형성되지 않는다. 촌이란 원래 집촌을 가리키는 것이다(462-463)."라고 부연하고 있다.
- 3) 일반적으로 '산촌'을 '고립농가와 소촌'으로 분류한 경우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용어 표기의 차이가 있는데, 김경성(1973, 334)은 '고립장택과 소촌락'으로, 오홍석(1980, 193-194)과 이전(2011, 128)은 '고립농가와 소촌'으로, 홍경희(1985, 184)는 '고립농가와 소촌(장촌, 莊村)'으로, 최기엽(1993, 74)은 '고립 혹은 소촌적인 촌락패턴'으로, 최은식(2002, 181)은 '고립가옥과 소부락'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 4)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98-99)의 연구자는 '이문종'이다.
- 5) 최기엽(1986, 138)은 우리나라 집촌의 경우도 태안반도와 유사한 발달과정을 거쳤음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집촌은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전기 이전까지는 '소규모 집촌' 내지 '소촌적 응집' 상태를 유지하다가 18세기에 이르러 '규모화(規模化)가 상당히 보편화됐음을 밝히고 있다.
- 6) 최기엽(1985, 104; 1986, 135; 1993, 76), 권혁재(1995, 254) 등의 연구는 태안반도에서 '발농사 이외에 논농사를 병행하는 산촌'까지도 '일반적 산촌'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발농사 이외에 논농사를 병행하는 산촌'은 '일반적 산촌'의 범주에서 벗어난 '유사산촌'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 이러한 연구들에서 산촌에서의 '반답 양상(발농사 이외에 논농사 병행)'을 '산촌 또는 소촌 경관'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일반적 산촌의 본질적 농업유형은 발농사이므로 산촌에서의 반답 양상은 '비산촌적 양상(非散村的 樣相)'으로 간주된다.

참고문헌

건설부국립지리원, 1980, 「한국지리: 총론」.
 국토지리정보원, 2003, 「한국지리지: 충청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리지: 총론편」.
 권혁재, 1995, 「한국지리: 지방편」, 법문사.
 권혁재, 2003, 「한국지리: 총론」, 법문사.
 김경성, 1973, 「인문지리학」, 법문사.
 대한민국학술원, 2002,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지리학」.
 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
 오홍석, 1980, 「취락지리학」, 교학사.
 오홍석, 1995, "한국의 취락에 관한 연구과제와 그 동향," 「목지오홍석박사화갑기념논문집 II: 한국의 농어촌과 환경연구」, 목지오홍석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3-24.
 이문종, 1983, "농촌의 공간구조 파악을 위한 연구와 과제,"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 석천이찬박사화갑기념논문집」, 석천이찬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56-77.
 이문종, 1986, "태안반도의 산촌 연구," 공주사범대학논문집, 24, 345-369.
 이문종, 1988,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문학박사 학위논문.
 이문종, 1989, "전통지역에 있어서 촌락의 형성: 서산군 대산면 화곡리를 중심으로," 공주 사범대학논문집, 27, 285-295.
 이문종, 1991, "태안반도의 씨족집단과 촌락의 형성,"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295-331.
 이문종, 1996, "촌락지리학 50년(1945-1995)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2), 213-254.
 이문종, 1998, "촌락,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 구조적 이해와 촌락조사를 위한 시론적 연구," 지역개발연구논총, 6(1),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15.
 이봉준, 1977, "태안반도의 산촌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이전, 2011, 「촌락지리학」, 푸른길.
 이찬·권혁재 역, 1973, 「인문지리학원리」, 법문사.(Emrys Jones, 1966, *Human Geography: An Introduction to Man and His World*, Frederick A. Praeger.)
 임덕순, 1990, 「문화지리학: 문화와 지리의 관계」, 법문사.
 임덕순, 1992, 「우리 국토 전체와 각 지역 I: 총론·계통적 이해」, 법문사.

- 전종한, 2003, "내포지역 해만개척의 전개와 경관변화의 사회적 주체," 대한지리학회지, 38(2), 206-223.
- 전종한 외, 2005,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 제29차세계지리학회대회조직위원회, 2000, 「한국지리」, 교회사.
- 정장호, 1980, 「신편한국지리」, 우성문화사.
- 정장호, 1989, 「한국지리」, 우성문화사.
- 최기엽, 1985, "산촌경관의 형성과정: 서산주변의 산촌지역 연구," 응용지리, 8, 79-106.
- 최기엽, 1986, "한국 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기엽, 1987, "조선시대 촌락의 지역적 성격," 지리학논총, 14,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7-32.
- 최기엽, 1993, "경관체험과 장소의 사회화," 「전환기의 한국 지리: 남계형기독교수화감기념논집」, 남계형기독교수화감기념논집간행위원회, 71-94.
- 최운식 외, 2000, 「정보화 시대의 국토와 환경」, 법문사.
- 최운식 역, 2002, 「인문지리학의 원리」, 교학연구사. (Paul Vidal de la Blache et Emmanuel de Martonne, 1921, *Principes de Géographies Humaine.*)
- 최원희, 2012,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지리학회지, 1(2), 237-265.
-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충청남도지 : 제2권 충남의 인문환경」.
- 홍경희, 1985, 「촌락지리학」, 법문사.
- 태안군지편찬위원회, 2012, 「태안군지 제1권 삶의 터전과 역사」.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0, *The Geography of Korea*.
-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 2000, *Korea, The Land and People*.
- Woods, M., 2005, *Rural Geography: Processes, Responses and Experiences in Rural Restructuring*, London: SAGE Publications.
- Clout, H. ed., 2007, *Contemporary Rural Geographies: Land, Property and Resources in Britain: Essays in honour of Richard Munton*, Routledge: NewYork.
- 교신 : 최원희,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cw@kongju.ac.kr)
- Correspondence : Wonhoe Choi, 314-701, 182 Shinkwandong, Kongju-si, Chungnam, Korea,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cw@kongju.ac.kr)

투 고 일: 2013년 3월 28일
 심사완료일: 2013년 4월 29일
 투고확정일: 2013년 4월 30일